

2010 아프리카 경제보고서

Promoting high-level sustainable growth to
reduce unemployment in Afri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frica Union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2010 아프리카 경제보고서

Promoting high-level sustainable growth to
reduce unemployment in Afri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Africa Union

목 차

약어표	1
개관	7
제1장. 세계 경제의 전개와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24
제2장. 2009년 아프리카의 경제사회적 현황 및 2010년 전망	37
제3장. 2009년 선정된 아프리카의 새로운 개발이슈	65
제4장.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84
제5장. 성장-고용-빈곤퇴치의 연계 : 회복과 MDG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111
제6장. 아프리카 선정 국가들의 경험사례	118

약어표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제국 연합
ACPC	African Climate Policy Centre/ECA	아프리카기후정책센터
AEO	African Economic Outlook	아프리카경제전망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fT	Aid for trade	무역을 위한 원조
AGOA	Africa Growth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안
AGRA	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	아프리카녹색혁명연합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
AMCEN	African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아프리카환경장관회의
AMU	Arab Maghreb Union	아랍 마그레브 연맹
APN	Asian-Pacific Network	아태지역네트워크
APF	African Partnership Forum	아프리카 파트너십 포럼
APRM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아프리카 상호 감시체제
ART	Anti-Retroviral Treatment	항레트로 바이러스 에이즈 치료법
AR4	Fourth Assessment Report of IPCC	IPCC 4차 보고서
ASSA	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s	애틀랜타 사회과학협회
AUC	African Union Commission	아프리카연합위원회
AWPS	African Women's Progress Scorecard	아프리카 여성지위향상 지표
BDC	Botswana Development Corporation	보츠와나개발협력
CAHOSCC	Conference of Africa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n Climate Change	아프리카 기후변화 정상회담
CEDA	Citizen Entrepreneurial Development Agency	시민기업청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CDSF	ClimDev-Africa Special Fund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특별기금
CDPoA	Copenhagen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코펜하겐선언과 행동계획
CEMAC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중앙아프리카 경제 및 통화 공동체
CFA	African Financial Community	아프리카금융공동체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 and Southern Africa	동남 아프리카 공동 시장
COP-15	15th Conference of Parties	15번째 당사국 총회
CO2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협력위원회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EAC	East African Community	동아프리카공동체
EAP	East Asia and Pacifi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B	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중앙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M	Congolese Household Consumption Survey	콩고 가계소득조사
ESA	East and Southern Africa	동남아프리카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에너지 관리청
EIU	Economic Intelligent Unit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EPADP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Development Programme	경제파트너십협정 개발프로그램
EPWP	Expanded Public Works Programme	공공사업 확장프로그램
EPZ	Export Processing Zone	수출가공지역
EPR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취업률
ERA	The Economic Report on Africa	아프리카경제보고서
ERR	External Rates of Return	외부수익률
EURO	The official currency of European Union members	유로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ED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Bank	미국연방준비은행제도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GA	Growth Accounting	성장회계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D	Growth Diagnostics	성장진단
GLSS	Ghana Living Standards Survey	가나 생활수준 조사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금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GR	Gross Regressions	총회귀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GPRS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빈곤퇴치와 성장지원 전략
G-20	Group of Twent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G20 공업화 국가 금융정상회담
HATAB	Hospitality and Tourism Association of Botswana	보츠와나관광협회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고채무국가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ICP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국제인구개발회의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and Research Institute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PP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캐나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
ISS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수입대체전략
LABORSTA	ILO Database on Labour Statistics	국제노동기구 운영 데이터베이스

LDC	Least Developed Country	최저개발국
LEA	Local Enterprise Development Authority	지역기업개발청
LEAP	Livelihood Empowerment Against Poverty	대빈곤 생계역량강화
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남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
MA	Moving Average	이동평균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새천년개발목표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외채과다빈곤국에 대한 IDA 채무탕감안
MFA	Multi-fibre Agreement	다자간 섬유 협정
MFN	Most Favoured Nation	최혜국대우
MIP	Minimum Integration Programme	최소통합프로그램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농업 시장접근
NA	North Africa	북아프리카
NAPAS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국가적응정책
NCAR	National Centre for Atmospheric Research	미국립기상연구소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파트너십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뉴욕상업거래소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
OHADA	Organiz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usiness Law in Africa	아프리카 기업법 조화기구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OVE	Orphans and Vulnerable Children	고아 및 취약아동
PACJA	Pan African Climate Justice Alliance	범아프리카 기후정의연합
PAMSCAD	Programme of Action to Mitigate the Social Cost of Adjustment	사회조정비용 완화를 위한 행동계획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빈곤 극복 전략보고서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

RATES	Regional Agricultural Trade Expansion Support Programme	지역농산물무역 지원프로그램
R & 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REC	Regional Economic Community	지역경제공동체
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실질실효환율
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DR	Special Drawings Rights	특별인출권
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 특혜 대우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중소기업
SMMEs	Small, Medium and Micro Enterprises	중소영세기업
SOWE	State of the World Economy	세계경제상황
SSA	Sub-Saharan Africa	사하라이남아프리카
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긴급수입관세 메카니즘
SSG	Special Safeguard	긴급수입관세
SVEs	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소규모취약국가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무역기술장벽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
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무역협상위원회
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
TVST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Training	직업기술훈련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EMOA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
UMA	Uganda Manufacturers Association	우간다산업진흥회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국제연합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cientific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프로그램
UN-DESA	United Nations –	국제연합경제사회국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연합인구기금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국제연합통계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청
WAEMU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서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
WB	World Bank	세계은행
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세계발전지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TI	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텍사스유

개관

- 아프리카는 21세기 첫 10년 동안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07년에는 대륙 전반적으로 6.1%의 성장률을 보였음.
- 비록 이 성장은 대륙 전체에 균등한 현상은 아니었지만, 몇몇 국가들에서는 인구증가율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고,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등 대륙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음. 성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자원 수출,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에서 비롯되었고, 동시에 거시경제의 안정 및 경제운용의 개선에 따른 결과.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실업과 불안정고용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고용에서의 성장을 담보하지는 못함. 실업은 여전히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2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고, 2008년 국제 재정 및 경제 위기는 실업문제를 악화시켰음.

- 와가두구 선언(Ouagadougou Declaration)과 아프리카 고용 및 빈곤 감소 행동계획(2004, Plan of Action on Employment and Poverty Alleviation on Africa), 아프리카 신개발 협력계획(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의 목표와 같이, 이번 아프리카 경제보고서(ERA) 2010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부터 얻게 된 교훈들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익한 정책에 활용하고, 더불어 빈곤 감소 방안으로서 아프리카인들에게 고소득 고용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고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ERA 2005와 ERA 2010은 모두 실업 감소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두 보고서의 관점은 각기 다름.
- ERA 2005는 세계 경제 호황기, 즉, 아프리카 상황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일 당시에 쓰였으며, 높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을 메커니즘으로 강조. 반면, ERA 2010은 높은 고용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적절한 거시 경제적 정책을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 즉, ERA 2010은 단기적 경기 조정(countercyclical) 정책들과 장기적 전략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ERA 2010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 첫 번째 부분은 글로벌 경제와 아프리카 경제의 최신 동향을 논의(chapter 1~3)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촉발된 도전들을 아프리카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높은 고용 창출을 동반한 지속적인 고성장을 가져오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chapter 4~6).
- 두 번째 부분은 보고서의 주제 부분으로, 고실업 문제를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감소시켜나가는 것에 관한 내용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실업 감소에 관해 언급.

세계경제의 발전과 아프리카에 주는 함의

□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는 2.2% 수축했고, 무역량도 12.4% 감소했으며, 개도국으로의 FDI 또한 급격히 감소.

□ 아프리카 GDP 성장은 2008년 4.9%에서 2009년 1.6%로 하락했으며, 2010년에는 다시 4.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성장 규모는 2009년 -4.9%에서 2010년 4.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실업률은 2010년에도 두 자리 수를 유지하는 등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황은 2010년 경상수지 및 재정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 바, 일본, 중국, 인도, 걸프협력회의 국가들(Gulf Cooperation Council)¹⁾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 지역에서도 2009년에

1)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 설립한 기구. 참가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다. 이 6개국은 해마다 각국을 돌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GCC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불안이었다. 1979년 2월 이란의 혁명에 따른 왕정 붕괴, 1979년 12월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 9월 이란과 이라크간의 전쟁 발발 등 일련의 긴박한 사건들에 대해 공동의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GCC 결성이 추진되었다.

는 흑자 규모가 감소했으며, 2010년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흑자 감소 추세는 주로 소득 증가 속도의 감소 및 각국에서 따랐던 확장적 경기조정 재정 정책(expansionary countercyclical fiscal policies)에 따른 높은 지출에서 비롯된 세입 감소 때문.

- 원자재 가격은 2009년 초반에 떨어졌지만, 그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10년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후반) 원자재 가격의 회복은 주로 원유가격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중국이 소비를 늘린 결과임. 그러나 US 달러 통화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실제로 2009년 원자재 가격은 2008년 수준 이하.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2009년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락함.
 - 세계 물가 상승률은 2009년 1.3% 하락했고, 2010년에는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물가 상승률은 선진국에서는 1.3%, 개도국에서는 4.7%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무역, FDI, ODA, 송금액도 2009년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2010년에도 경제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국제 FDI는 43% 감소.
 - 비록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유입되는 FDI가 매우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이 감소의 상당 부분 원인은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FDI의 양이 줄었기 때문임. 2010년에는 FDI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증가분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 걸쳐 균등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 아프리카에 지원되는 ODA는 2007년 24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FDI가 11% 감소함.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하고 국내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FDI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전 세계 FDI의 적은 부분을 받았지만, 이 적은 양의 투자도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훨씬 중대한 경제적 역할을 함.
- 송금액은 개도국에 유입되는 해외 자본의 중요하고도 증대되고 있는 원천이라 볼 수 있으며, 2010년에는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송금액의 감소율이 점차 느려질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금융 위기는 전 세계 실업률과 근로 빈곤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세계 실업률이 2008년 5.9%에서 2009년 6.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악의 경우 2009년 7.4%까지도 오를 수 있음. 최악의 추정치에 따르면, 2009년에는 근로 빈곤층 역시 28.8%까지 상승하게 됨.
-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
-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상수지와 재정균형 상황이 모두 나빠졌음. 심각하게 낮은 성장률뿐 아니라 무역규모, 수출수입(export revenue), 투자율, 저축률, FDI도 감소.

최근 아프리카에서의 경제 및 사회적 성과(performance)

2009년 중대한 변화들을 동반한 아프리카의 성장 속도 감소

- 글로벌 경제 위기의 결과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은 2008년 4.9%에서 2009년 1.6%로 지속적으로 둔화.
- 원자재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출은 여전히 아프리카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
- 비록 2009년 상반기에는 일반적으로 석유와 다른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했지만, 2009년 상반기에는 다시 회복되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2009년 석유를 수출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 2.5% 성장했던 것에 비해, 석유 비수출 국가들은 0.5% 성장을 기록함.

- 2009년에는 아프리카 지역 및 국가들에서 상당한 지역적 변화들이 있었음.
-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동아프리카가 3.9%로 가장 크게 성장했고, 이어 북아프리카가 3.5%, 서아프리카가 2.4%, 중앙아프리카가 0.9%, 남아프리카가 1.6% 성장함. 2009년에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53개국 중 단 7개국만이 5%이상 성장했고, 29개국은 3%이하 성장에 머무름. 이는 2008년 5%이상 성장 국가가 25개국, 3%이하 성장 국가가 16개국인 것과 비교되는 수치임.
- 전 세계의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의 하락,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내수 약화, 식량 초과 생산으로 인해 2009년 아프리카 인플레이션은 감소함. 석유 수출국들은 통화 가치가 하락한 타 국가들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음.
-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들이 있었지만, 2009년 아프리카의 평균 경상 수지는 3.5% 감소함. 석유수출국들에서는 대외균형(external balance)의 단 0.7% 하락한 반면, 석유 수입국들은 6.2%나 떨어짐.

2009년 매우 높은 실업률 및 취약계층(vulnerable)의 실업률

- 글로벌 경제 위기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미 높은 실업률과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을 악화시킴.
-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09년 실업률이 10% 이상 상승한 동시에, 공개적 실업이 최고조에 달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비공식 부문 취업과 취약계층 고용(vulnerable employment)이 대대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고용 문제임.

2010년 전망: 증가된 취약성을 동반한 느리고 가변적인 회복

- 2010년 아프리카 경제는 GDP 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성장률은 북아프리카가 4.2%, 석유 수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5.1%, 그리고 석유 수입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4.9%일 것으로 추정됨. 물론, 만약 2010년에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높게 유지된다면, 석유 수출 아프리카 국가들은 석유 수입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예상 GDP 성장률은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0년 아프리카 지역에서 실업, 취약 계층 고용, 근로빈곤층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제 성장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아프리카 수출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 민간 자본 유입 증가, ODA 및 송금액 증가, 지속적인 재정 정책 자극 등 국내 및 국제적인 요인들에 의해 비롯될 것으로 보임.
- 긍정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는 큰 규모의 증가하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음. 그러나 점점 더 노동력은 교육을 받고, 혁신적이며, 젊어지고 있음.

아프리카의 사회적 발전에서의 최신 경향

빈곤 증가를 동반한 급속한 인구 성장

- 아프리카의 인구는 2008~2009년 간 2.3% 증가했고, 약 10억 명에 도달함.
- 인구의 70%가 30세 또는 그 이하. 이러한 인구 증가 현상과 그 구성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 거대한 인력풀인 동시에, 도농 간의 이주 증가, 위생, 사회 서비스, 주거, 고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함.
- 아프리카 빈곤 상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분명 빈곤율은 높으며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극빈층 인구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51%, 북아프리카 지역에 3%였음. 명확한 성별 빈곤 정도도 알 수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과 아동이 남성보다 더 빈곤함. 최근 경제 위기는 아프리카의 이러한 빈곤 상황을 악화시켰고, 또다시 여성과 아동은 이 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인적자원형성 성과 저조한편

- ☐ 일반적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잘 교육되고 건강한 노동력이 필수적인 바, 아프리카는 이에 대해 놀라운 진보를 보임.
 - 초등학교 등록률은 2006~2007년간 사하라이남 지역에서 71~74%였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91~96%였음. 최근 경향을 보면 아프리카는 2015년까지 초등학교 등록률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초등 교육의 질적인 면, 특히 여아들의 교육 수준은 훨씬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더불어 중등, 고등학교 등록률은 세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
 - 비록 문맹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더욱 잘 교육된 졸업생들을 배출할 교육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아프리카 평균 기대수명은 대륙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2009년 대략 남성 55세, 여성 57세.
 -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대수명이 높은 곳은 모리셔스, 모로코, 튀니지와 같이 70세 이상이고, 낮은 곳은 레소토, 잠비아, 짐바브웨와 같이 약 46세 정도. 이렇게 기대수명이 낮은 이유는 HIV/AIDS 때문이며, 결핵과 말라리아 수치는 점점 감소하고 있음.
- ☐ 사하라이남 지역에서의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은 2006년 1천 명 당 160명이었고, 2007년 1천 명 당 145명이었으나 유아사망률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990년 1천 명 당 83명에서, 2007년 1천 명 당 35명으로 감소했음.
- ☐ 모성사망률은 여전히 높은데, 1990년 1만 명 당 920명에서 2005년 1만 명 당 900명이었음.
- ☐ 깨끗한 식수는 2006년 60%까지 증가.
- ☐ 이러한 개선은 도시 지역에서 현저하게 높게 이루어졌던 반면, 아프리카인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했음.

양성평등의 더딘 향상

- 2009년 12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 르완다 56.3%, 앙골라, 부룬디, 모잠비크, 남아공, 우간다, 탄자니아 30%를 달성 했으나, 2009년 기준, 여성 장관의 수는 적었음.
- 여성폭력은 여전히 높았으며, 2009년 초중등학교에 등록된 여아 수는 증가했지만 남아와의 평등한 수준으로는 도달하지 못했음.

매우 높고 상승 중인 실업과 취약한 고용

- 실업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할 때조차도 높았으며, 최근 경제 위기는 이러한 실업 문제를 악화시켰음.
- 2008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실업률은 7.6%,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0.1%였음. 사하라이남 지역 실업률이 매우 낮은 반면에, 취약한 고용 비율은 노동력의 약 77%이고, 경제 위기로 인해 증가할 전망. 이러한 취약한 고용계층은 근로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빈곤 감소는 이러한 취약한 고용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큰 직업창출 노력이 필요함.
-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문제는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이기도 하므로, 장기적인 성장·고용 전략은 반드시 여성, 청년, 농촌빈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함.

2009년 선정된 아프리카의 새로운 개발이슈

2009년 국제무역 개발

- 2009년 아프리카는 국제 상품 무역에서 약 3.4%를 점유하는 등 세계 무역 시장에서 주변적 역할을 지속해왔음.
- 원자재가 주요 수출품이며, 최근 동남아시아 및 브라질 등지에도 수출하지만, 주로 선진공업국들에 수출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재 수출 시장과 상품들의 좁은 범주에 의존적인 아프리카 수출소득은 시장 변동에 극단적으로 취약함.

- 아프리카 대륙 간 무역도 소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체 무역량의 10% 이하.
- 아프리카는 WTO의 도하라운드 하에서 농업 및 비농업 시장 접근에 관한 조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2009년에는 국제 무역 관련 협상들에서 주요한 진전은 없었음. 그러나 G20 포럼에서 제시된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 구조의 발전 및 2009년 협상 과정의 재구조화는 아프리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정치경제 부문에서의 중요한 두 가지 동력임.
- 2009년에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에 관한 협상에서 중대한 변화는 없었으나, 아프리카 무역 장관들은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와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에서 준비한 EPA 잠정 협약(template)에 승인.
 - 이 잠정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주로 유럽연합에서의 시장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몇몇 그룹에서는 포괄적인 EPA가 2008년 말까지는 마무리되고 승인되길 기대했으나, 아프리카 지역 통합 과정 및 무역 관련 이슈들 같이 몇몇 중요한 이슈들 때문에 협상 마무리가 어려움을 겪음.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EPA가 아프리카 역내 무역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 그룹들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건.
 - 따라서 본 보고서(ERA 2010)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륙 전체 차원에서 보다 조정된 전략을 가지고 포괄적인 개발 차원에 중점을 두고, EPA 협상과 세계 무역 협상을 연결시키는 전반적인 지역 EPA 협상을 지속해가기를 독려함.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의 개발 자원

- 아프리카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재원이 감소하는 등 재정 발전에의 위기에 직면함.

- 국내적 재원 유동과 관련해서는, GDP 대비 국내 저축률이 2008년 25%에서 2009년에는 19.3%로 떨어짐. 반면 GDP 대비 세입 비율은 각각 사하라이남 지역이 21%, 북아프리카 지역이 10%로 감소.
- 아프리카 국가들은 증세(improved tax) 및 관세제도(customs administration)를 통해 국가세입을 늘리려하고 있음.
- 무역 수입도 2009년 감소세
 -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수입 및 수입 모두 25%까지 떨어진 곳도 있음. 수출수입이 떨어진 이유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그로써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임.
- 2008년 아프리카로 유입된 민간자본은 870억 달러였으나,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2009년 세계 원자재 가격의 붕괴로 인해 광물자원 추출 부문에서의 FDI가 감소한 결과로써 민간자본유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평가.
- ODA는 개발 자금의 주요 원천이자, 특히 인프라, 교육, 보건 부문에서 중요한 자금원. OECD/DAC 회원국들은 2009년 모든 개도국에 220억 달러 ODA를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비회원국들은 2009년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늘렸음.
-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9년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 하에 부채탕감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려옴.
 -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는 증가했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8년 22.4%에서 2009년 25.4%로 증가. 수출 대비 채무원리금 비율도 2008년 15.9%에서 2009년 16.2%로 증가. 만약 아프리카 부채 비율이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아프리카는 지속 불가능한 고채무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임.

- 글로벌 재정·경제 위기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요 개발 재원으로 국내 자본을 이용할 정책들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사실 또한 강조
-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창조적이고 적절한 재정과 자본 시장의 개혁을 통해, 국내 자본 동원을 강화하는데 심각한 주의를 요함.

필요하지만 대가가 큰 기후변화 완화 문제

- 기후변화가 아프리카에 가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은 부정적이며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지역에서 농업 생산량은 5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점차 감소하는 자원을 둘러싼 사람 간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아프리카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인데 반해,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 최소한의 자금만을 조달할 수 있을 뿐임. 비록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이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관련되어 일어날 결과들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증대하고 있는 노동력을 위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글로벌 기후변화 전망은 탄소중심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급진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음. 현재 아프리카의 낮은 수준의 탄소중심 경제의 발전은 곧 녹색경제에서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는 2009년 기후변화 관련,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던 UN 회의에 활발하게 참석했으며, 비록 2009년 코펜하겐 협약은 승인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는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와 절차를 발전시킬 수 있었음.

빈곤감소를 가로막고 있는 고실업 문제

- 직업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불행히도 아프리카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높고 지속적임.
- 북아프리카에서 실업은 두 자리 수이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공식적인 실업률이 한 자리 수이지만, 노동력의 75% 이상이 저생산 비공식 부문에 취약한 고용 형태로 고용되어 있음. 이렇게

높은 실업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명백한 원인은 아프리카 경제가 증대하는 노동력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경제성장이 뿌리내릴 수 있는 부문이 자본집약적인 부문이기 때문. 높고 증가하는 실업은 빈곤율의 감소를 어렵게 하고, 동시에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게 됨. 또한 높은 실업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의지를 꺾고 기술 상실을 야기.

- 높은 실업률에 대해 아프리카가 고심해야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촉발될 수 있는 사회적 불안 요소 때문임. 즉, 지속적인 실업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맛보게 하고, 취업에의 적은 기회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로 자연스레 사회 혁명으로 이끌기 때문임. 따라서 아프리카는 이러한 실업문제에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아프리카의 실업을 줄이기 위한 high-level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 지난 십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여전히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 이 실업 문제는 빈곤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소득불균형을 증폭시키며, 아프리카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격변을 야기.
- 특히 일자리 창출은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문제임. 하지만 긍정적인 현상으로 아프리카 노동력이 점차적으로 잘 교육되고, 건강하며, 그 생산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높고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실업률은 공급과 수요로부터 영향 받고 있음.
 - 공급 측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노동력은 급속한 인구성장과 노동력 참여 증가, 특히 여성들의 참여 증가로 인해 급속히 증대.
 -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지 못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음. 첫째로, 경제가 충분히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했던

문제를 들 수 있음. 비록 지난 10년간 역사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아프리카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긴 했지만, 2007년 6.1% 경제 성장률은 MDG에서 요구하는 7%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둘째로, 성장의 결과로서 고용탄성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주도한 부문들이 자본집약 부문(capital-intensive enclave sector)이었기 때문임.

- 본 보고서(ERA 2010)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경기 후퇴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개혁과 다양한 경제에 기반 한 급속하고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독특한 기회라는 점,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급속하게 성장하는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경제의 노동력-흡수 부문(labour-absorbing sectors)을 급격히 발전시킬 기회라는 점을 논의함.
-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은 인프라, 인적자본, 안정적인 거시경제 및 정치 환경 구축, 경제운용의 향상이었음.
 - 이러한 점증하는 축적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수입이 증가했고, 천연자원을 추출하기 위한 FDI가 증가했고, 해외로부터 ODA 및 송금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재정 상황 때문이었음.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은 증가함.
- 급속한 고용 성장은 노동집약부문에 대규모의 고도 노동집약부문의 경제성장 동력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성취해낸 이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필요로 할 것임.
 - 이러한 견지에서 농공산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 특히 서비스 수출 부문이 탐색되며 확대될 것임.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아프리카 경제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부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고용정책에서는 비공식부문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아프리카는 고용창출을 동반한 고도성장을 촉진하는 필수적인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단기 및 장기적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잘 기획되고, 이전에 수행되었던 거시경제 및 부문 전략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발 계획 틀에 기반 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프라와 인적자본 형성에의 투자 확장에 중점을 둔 확장적 경기조정 재정 및 통화 정책들을 따라야 함.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노동집약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고용은 취약계층을 목표로 해야 함.
 - 장기적인 정책들은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달성 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동반할 것임. 가령, 비자원 추출 부문 (non-resource-extraction sectors), 특히 서비스 수출, 농공산업, 아프리카의 비교우위가 있는 녹색산업(예, 재생가능에너지) 등에 FDI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개별 아프리카의 경제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급속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얼마나 국제시장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또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정책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노동시장개혁을 수반함.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가 더 이상 불필요한 기술을 지닌 노동자를 해고하고, 반대로 필요한 기술자들을 고용하며, 고정임금이 아닌 기술 부족을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등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해야만 가능함.
- 아프리카의 더딘 경제성장의 원인 중 하나는 숙련 노동력이 부족한 것임. 대학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업상태이고, 아프리카 기술 교육 시스템과 실제 기업들의 필요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 장기적 고용 정책은 반드시 적절한 교과 및 교육과정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심해야 함.

□ 취약계층이 극도로 높고 지속적인 실업문제에 당면해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고용정책은 반드시 이 취약계층을 목표로 해야 함. 이들의 높은 실업의 원인은 기술과 경험부족, 지리적으로 직장이 많은 지역과 떨어진 곳에 산다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때문임. 따라서 이들에게 기술훈련과 고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공지구(rural industrialization)를 통해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을 분권화하려는(decentralize employment) 노력이 필요함.

□ 아프리카의 더딘 성장의 원인들 중 하나는 총 요소 생산성의 더딘 성장 또는 성장이 없기 때문임.

○ 소득증가율의 촉진은 아프리카의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 노력을 수반할 것.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비자원 관련 FDI를 통한 기술 이전과 같은 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용창출에 열심을 내어야만 고용이 증대될 수 있음. 따라서 고용창출은 통합적인 아프리카 개발 아젠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고용 관련 데이터가 필요함.

□ 아프리카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이질성도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들은 국가별, 지역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야 함.

□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는 아프리카의 취약성을 입증하였으며, 아프리카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개발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외부자원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입증함.

○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을 위해 국내 재원을 동원할 능력을 키워야할 필요가 있음. 결국, 아프리카 개발은 아프리카인들의 책임임. 만일 아프리카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저축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개발 필요에 충분한 자원을 마련할 것임. 저축률 증대를 위한 혁신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들, 세금징수의 효율성, 그리고 과세기준의 확장이 아프리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우선순위여야 할 것임.

결론

- 글로벌 경제위기는 2009년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1.6% 하락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속되었음. 이러한 과정은 아프리카의 재정축적 능력과 사회 서비스 제공 능력을 저하시킴. 2009년의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경제위기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의 실업과 불완전 고용은 증대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미 높아져있는 실업률을 악화시켰을 것임.

- 국제 원자재 시장이 중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프리카 중기 전망은 거시경제 및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2009년보다 밝음.
- 2010년 아프리카 경제는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MDG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고, 2010년에는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단·장기적으로 저성장, 높고 증가하는 실업, 증가하는 빈곤 등 세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음. ERA 2010의 메시지는 글로벌 위기로 아프리카는 심각한 개발에의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것은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하고 급속히 빈곤을 감소시킬 지속 가능한 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초석을 다질 특별한 기회라는 것임.

-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기후퇴를 극복할 방법으로 인프라, 교육, 보건에 재정을 투입할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따라야 함.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반드시 농촌 도로 및 식수 프로젝트와 같은 노동집약적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장기 전략은 저고용(low-employment-generation) 천연자원 추출 부문에서 고-고용 노동집약적 제조업, 농공산업, 서비스업 의존적 경제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 이러한 투자와 생산 양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바로 인적자본의 양과 투입될 인적자본의 유형임.

- 요소시장(factor markets) 또한 노동집약적 생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함. 더욱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총 요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에 주목해야 함.
- 이러한 정책은 향상된 경제 및 정치적 운용, 더불어 정치적 안정, 기술이전, 연구 및 개발에의 투자를 포함함. 결국,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개발 아젠다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재원에 의존할 수 없음.
-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프리카 자국 발전을 위한 국내 재원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 이러한 국내자원으로부터 비롯된 개발 재정은 아프리카 발전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가 '그들의 운명의 주인'이 되게끔 해 줄 것임.

제1장. 세계 경제의 전개와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 2009년 세계 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징조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 후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 주식 시장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회복세 진입. 국제 무역과 세계 산업 생산도 분기별 플러스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기록하는 나라들이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짐.
- 반면 이러한 긍정적인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전망. 정부와 중앙은행은 갑자기 찾아든 경기 후퇴에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 실시. 다만, 이는 부채탕감을 위하여 여전히 수조 달러가 필요한 선진국에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됨.
- 전세계 실업률 상승은 미국과 유럽이 2009년 실업률 10%를 상회하는 등 불가피해 보임. 개발도상국은 실업률이 낮은 편임. 다만,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엄청난 인구와 상대적 빈곤으로 인하여 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 존재함.
- 아프리카는 세계 경기 후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나, 회복세를 보임.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안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에 따라, 아프리카는 수출과 해외 직접 투자 면에서 이득을 얻음. 전세계 수요 부진과 물가 하락, 대출 조건 강화, 가계 지출 약세 및 기업 신용 하락 등은 아프리카에 불리하게 작용. 2010년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중국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는 성장을 회복할 전망.

1.1 2009년 세계 경제 침체로부터 더딘 회복 전망

- 2009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거시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의 지원으로 안정되기 시작. 세계 경제는 2008년 4분기에 급격히 수축,

2009년 1분기에도 경제 수축이 진행되었으나, 3분기에 완만한 성장 회복세를 보임. 2009년 선진국은 평균 3.5% 경제가 축소된 반면, 개발도상국은 1.9% 성장을 기록, 세계 전체로는 -2.2% 성장.

- 2009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재정 확대 및 통화 완화 정책과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해 경제 위기의 충격이 다소 완화됨.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가 취한 강력한 금융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경제성장률은 2.5% 감소. 유가와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신용 조건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단계적으로 회복, 2010년 미국 경제는 2.1% 성장할 전망.
- 일본도 수출 실적 부진과 산업 생산의 대폭 감소에 따라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 2008년 0.7% GDP 감소에 이어 2009년 5.6% GDP 감소 추정.
- 유로지역(Euro Area)도 2008년 0.9% 성장 대비 4.1% 경기 위축을 보임. 세계 경기 후퇴에 따라, 중국, 인도와 같은 값싼 공급처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생산력이 개도국으로 재분배.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에 따라 유럽의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2010년 유로지역은 지역내 수요와 수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 선진국 비교, 성장 저조가 예상됨.
-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경기 후퇴의 영향이 비교적 적어, 2008년도 6.1% 성장에 이어 2009년 4.3% 성장에 이를 전망 이들 개발도상국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기후퇴는 외부적인 수요 약세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국내 수요 강세가 원인.
- 중국은 선진국의 수요 약세에 따른 수출 감소로 인하여 2008년 9% GDP 성장에서 2009년 8.4% 성장으로 둔화, 2010년에는 8.7%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위안화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중국 국내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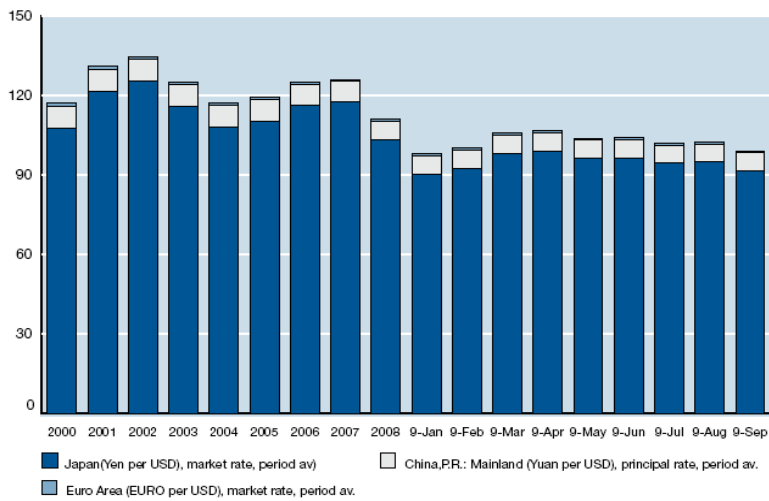
불구, 2009년 하반기 유럽과 일본 시장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증가. 이같은 플러스 성장 달성은 2008/2009년에 실시한 5,860억 달러 (GDP의 14%) 규모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안에 따른 것임.

- 서아시아는 2009년 유가 하락과 국내 소비 및 투자 지출 감소에 따라 2008년 4.5% 성장 대비 2009년 1.2% GDP 축소. 서아시아는 지난 10년간 이 지역 국가들이 나타낸 안정화 추세에 따라 2010년도 3.8% 성장할 전망.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LACs)은 2008년 4% 성장 대비 2009년 2.2% 성장률 감소. GDP 축소의 주요 요인은 LAC 국가들의 주요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 국내 수요 감소, 물가 하락, 본국 송금 감소 등임.
- 아프리카도 2008년 4.9% 성장에서 2009년 1.6 % 성장으로 GDP가 축소했지만, 2010년 4.3%로 회복될 전망. 물가 하락, 수출 감소,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원조 및 본국송금 감소등이 저조한 경제 실적의 주요 요인임.

1.2 미달러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에 따른 국제외환시장 침체

- 2009년 국제외환시장에서는 2009년 2월 중순 이래 미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약 20% 가치가 하락하는 등 평가절하 강세가 현저
 - 금융 위기와 미국 대형 은행들의 손실에 따라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미 달러화에 영향 및 유동성 위기와 신용 위기 발생. 미 연방준비제도는 2009년 미연방자금(FF) 금리와 할인율을 0.75 % 내리는 통화 완화 정책 실시.

Figure 1.2
Trends in international foreign exchange markets



Source: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2009b).

- 2008년 10월 이래 유로화는 잇따른 평가 절상 조치에 따라 미 달러에 대해 평가절상. 이에 따라 유럽의 대미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음.
- 일본은행(BOJ)은 2009년 11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시중 은행에 이자율 0.1%로 3개월 융자해 주는 안을 포함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

1.3 2009년 강화된 거시경제의 불균형

- 2009년 세계 GDP 축소가 세계 무역 성장에 끼친 영향은 심각.
 - 주요 선진국의 수입 수요 감소와 무역 금융 규제 강화에 따라 2009년 무역 흐름은 12% 이상 감소. 2009년 2분기 이후 이러한 무역 흐름은 회복되었는데, 이는 재고 감소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소비에 따른 수입 수요와 기업 투자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임.
 - 미국은 2009년 수입이 14% 감소한 반면, 수출은(교역량 기준) 10.4% 감소. 달러화 평가 절하와 국내 수요 약세 및 2008년 여름 이후 연료 가격 하락에 따라 급격한 수입 감소. 2009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이 2% 이상 감소.
 - 유로지역은 2009년 해외 무역 위축과 GDP 감소에 따라 경상 수지 적자가 2008년과 동일한 GDP의 0.7%에 머무름.

- 2009년 아프리카는 유가와 광물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총수출이 총수입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총무역 감소. 다만, 2010년 아프리카 무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
- 2008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일본, 중국, 인도 등 지역도 2009년에는 흑자폭 감소를 경험.
- 2008년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은 2009년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 다만, 유가 하락에 따라 경상 수지 흑자는 2008년 26.3%에서 2009년 6.3%로 급격한 하락을 보임.
- 아프리카는 2008년 GDP의 2.5% 경상 수지 흑자 대비 2009년 3.1% 경상 수지 적자를 기록. 아프리카는 금융위기보다 세계 경기 후퇴의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반영되어 경상 수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
- 주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러시아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를 제외하고 세계적인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 증가.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수출 증가로 인한 경상 수지 흑자에 따른 것임.
- 선진국 재정 수지는 성장 감소와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경기 부양안에 따른 지출 증가로 인해 악화됨.
 - 부유국들은 고군분투하는 산업을 지원하고 세계 경기 후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와 국내 수요를 촉진하는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실시. 유로지역의 일반적인 정부 예산 적자는 2008년 GDP의 -1.8%에서 2009년 -6.2%로 증가, 미국은 -12.5%로 예산 적자가 증가했고, 일본은 -10.5%로 증가함.
-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와 재정 수입 감소에 따라 많은 저소득국가에서 국가 재정이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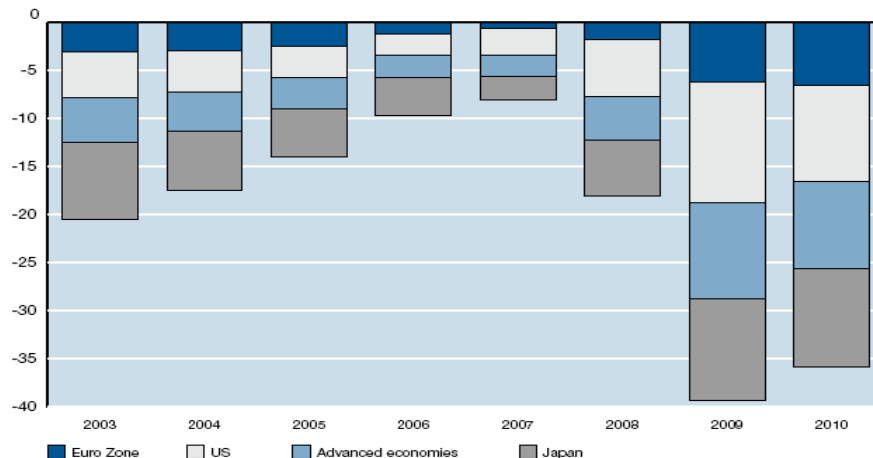
- 대부분 개발도상국은 GDP 약 3~5% 규모의 예산 수지 악화 경험, 일부 석유 수출국과 남아시아 국가들은 예산 수지 개선. 아프리카에서는 공공 예산 적자가 심화되면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적자와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현재의 도전 과제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

1.4 세계 물가는 반등했으나 2008년 중반의 최고점 아래에 머물러

-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일차 상품 가격 지수측정 물가는 이전의 기록적인 수준에서 급격히 하락, 이후 2개 분기동안 강한 반등세를 보임.
- 2010년 물가는 안정될 전망이며,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했던 경기 후퇴에서 선진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2011년 중반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수요 증가임.
- 2009년 1~8월 국제 물가는 약 30% 반등하였으며, 이는 아래 5개 요인에 따라 설명 가능.

Figure 1.5

Central government fiscal balances for selected regions and economies, 2000-2010 (% of GDP)



Source: IMF (2009b); 2009 estimates, 2010 forecast.

Note: Data for other categories are not available from the IMF database.

- 첫 번째, 공공 투자에 중점을 둔 경기부양안에 따라 중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점. 이는 금속과 같은 건설 원자재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짐.
- 두 번째, 일부 원자재의 생산 감소가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점. 특히, 중국 정부는 금속 제품 생산업체와 같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기업의 조업을 중단시켰음.
- 세 번째, 1차 상품에 대한 세계 수요 기대가 상향 조정되면서 2009년 1분기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분위기로 인해 언더슈팅(undershooting)된 가격이 상승한 점.
- 네 번째, 농업 분야 등의 생산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완전히 반영된 점.
- 마지막으로, 석유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달러 약세에 따라 생산자들의 외화 수익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점임.

원유

- 원유 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급 감소와 중국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로 인해 상품 가격 지수가 평균 36% 상승.
- 2009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와 석유 시장 회복을 주도. 2009년 OECD 회원국의 석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비회원국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상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감소와 결합하면서 2008년 3분기 이래 처음으로 세계 석유 소비 증가. 2009년 4분기 중국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가격 상승은 멈추게 됨.
- 서부 텍사스유(WTI)는 2009년 10월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전달보다 배럴당 평균 6달러 오른 76달러에 거래.
- 석유 소비 증가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석유 재고 과다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면서 한 달 새 8% 넘게 가격이 상승. 2009년 원유 시장은 아시아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면서 안정세를 보였고, 가격 변동성은 감소.

식품과 열대 음료

- 총식품가격지수는 2008년 6월 정점에 달한 뒤 서서히 하락하여 2009년 8월에는 2008년 6월의 77% 수준으로 떨어짐.
- 코코아와 설탕을 제외한 모든 주요 식품과 열대음료 가격이 하락.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은 세계 경기 후퇴임. 세계 수요가 둔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불확성이 증대하고 가격이 하락. 이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 농업 생산의 인센티브가 감소하고, 향후 수년간 주요 투자처가 식품에서 연료로 변경될 가능성 발생.

농업 원자재, 광물, 광석 및 금속

- 농업원자재 가격은 2008년 8월에서 2009년 3월 사이 평균 33% 하락, 2009년 4월부터 8월말까지 평균 24% 가격이 상승함.
- 2009년 국제 천연 고무 가격은 33% 하락했는데 이는 당해년도 생산 과다, 수요 감소, 유가 하락이 원인.
- 국제 경제 위기는 자동차 판매와 자동차 타이어 수요(최종 고무 소비의 70% 차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쳤으며 특히 중국 수요가 저조.
- 2009년 세계 비금속 가격은 2008년도 대비 32% 하락.
- 구리, 아연, 납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OECD 회원국이 중심이 된 국제 수요 하락에 따라 가격 하락.

1.5 전세계 인플레이션은 하락세 현저

- 2009년에는 세계 경기 후퇴, 수요 감소와 물가 하락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인플레이션이 하락.
- 경기 부양을 위해 선진국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세계 인플레이션은 2009년 1.3%로 하락, 2010년 회복세를 보여 2.2%에 이를 전망. 2010년 물가는 회복되나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전망.

- 선진국 인플레이션율은 2008년 3.3%에서 2009년 0.1%로 하락, 2010년에는 1.3%로 상승할 전망.
- 2007~2008년 경이적인 인플레이션은 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임. 선진국은 2009년 경제 성장 약세에 따라 인플레이션 하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허약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보임.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2009년 4.3%로 하락했으나 2010 4.7%로 상승할 전망.
- 아프리카와 카리프해(LAC) 지역은 세계 수요 둔화와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인플레이션 압력이 비교적 높게 유지. 아프리카는 2009년 인플레이션이 8.1%로 하락, 2010년 6.1%로 하락할 전망. LAC 지역은 인플레이션이 2008년 7.8%에서 2009년 6.2%로 하락. 비경기순응적인(non-accommodative) 거시경제 정책과 국내시장에 대한 가격의 불완전한 반영이 두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된 주요원인.

1.6 국제 송금은 감소했으나 균일하지 않아

- 개발도상국에 대한 본국 송금 유입은 2007~2008년 증가한 반면, 2009년 4,201억 달러로 2008년 대비 5.3% 하락하는 감소 추세 보임
- 2009년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는 본국 송금 유입이 5% 증가한 반면, 서아시아에서는 5.5% 감소. LAC 지역 국가에 대한 본국 송금 흐름은 타 지역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10%)을 기록. 이는 라틴 아메리카 이주자들의 주요 목적지 국가인 미국과 스페인(특히 건설 부문)에서 경제 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시작되었기 때문.
- 아프리카에 대한 본국 송금은 2008년 408억 달러에서 2009년 381억 달러로 감소(7% 감소).
- 북 아프리카 최대의 수원국인 이집트에 대한 본국 송금 유입은 2009년 상반기 20% 감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에 대한 흐름은 증가하거나 다소 감소. 2009년 상반기 카보베르데, 세네갈, 말리에 대한 본국 송금은 감소.

- 세계 경제 위기만으로 2009년 글로벌 이민과 본국 송금의 추세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민자의 소비 감소 노력, 통화 효과, 2008년 흐름의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base effect) 등 세 가지 요인도 크게 작용함.

1.7 세계 경제 위기는 FDI 유입과 ODA를 위협해

- 2009년 세계 FDI 유입은 43% 감소했으며, 선진국에 대한 유입감소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입 감소보다 급격함.
- FDI 유입 감소는 미국과 EU에서 각각 62%와 45%로 두드러짐.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30% 감소, 신흥 시장의 주요 FDI 수원국인 중국은 31% 감소함. LAC지역에 대한 FDI 흐름은 42% 감소 및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대한 FDI 흐름은 각각 35%, 46% 감소.
- 선진국은 일관되게 세계 FDI의 많은 몫을 유치.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의 위협성, 선진국의 발전된 제도와 인프라, 전반적으로 우월한 기업 환경이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시장 역동성과 저비용의 매력을 압도함.
- 중국,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FDI 유치 실적이 우수. 2009년 말 중국의 현저한 GDP 성장 회복세에 따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경제 회복에 들어설 수 있었음.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대다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도 2009년 선진국보다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등 선진국 경제에서 일정 정도 '탈동조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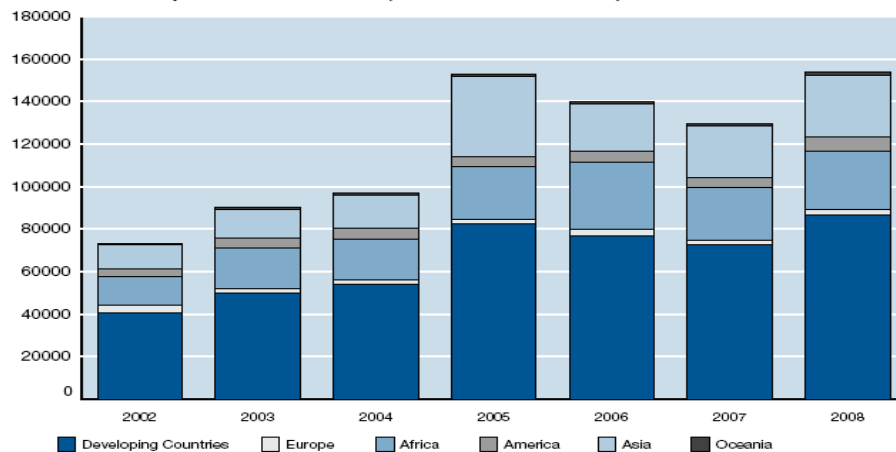
- 2008년 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2007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나, 2010년 감소하여 아프리카 빈곤국의 MDG 달성은 어려울 전망.
- 2002년 몬테레이 회의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는 증가하여 2007년 245억 달러로 정점에 달함. 전체 원조액 가운데 53%가 이집트, 모로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수단,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우간다, 케냐, DR 콩고 등 10개국에 지원. 2010년 대다수 공여국의 예산 상황 악화, 선진국 주요 금융 기관의 붕괴, 신용 위기, 석유 수출국의 흑자 감소, 소버린 국부 펀드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감소할 전망.

1.8 글로벌 고용 위기와 근로빈곤의 증가

-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실업 증가와 근로 빈곤의 확대를 초래.
- 실업률은 2010년 경제가 회복하면서 점차 감소하나, 지역, 국가, 성별, 연령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일 전망.

Figure 1.10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urrent \$US million) 2002-2008



Source: OECD online database, December 2009.

- 2009년 전세계는 고용 창출 면에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임.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세계 실업률은 2007년 5.7%에서 2008년 5.9%로 상승, 2009년 최선의 시나리오 수치인 6.5%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수치인 7.4 %로 급증함. 선진국과 EU에서는 2009년 순 고용 성장이 1.5~3.3% 하락. 선진국과 중부 유럽과 남동부 유럽(EU비회원국) 국가들은 -0.9~-2.2%로 마이너스 고용성장률을 기록. 동아시아와 LAC 지역은 2009년 각각 -0.7% 및 -0.6% 고용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용 창출보다 고용 소멸이 많음. 아프리카는 2008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에서 실업률 7.6%, 북 아프리카에서 실업률 10%로 높게 나타났고, 2009년 실업률은 SSA에서 8.2%, 북아프리카에서 10.6%로 상승.

- 2009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고용과 근로 빈곤율이 모두 증가.
 - 비공식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임금과 수입이 감소하였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에서 근로빈곤율은 2007년 58.9%에서 2009년 67.9%로 상승.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 소득 감소를 경험했으며 빈곤선 이하로 떨어졌음을 반증.
- 2009년 말에 시작된 세계 경제 회복은 고용 창출 지연에 따라 전세계 고용에 즉각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전망.
 - OECD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0년 11%에 달하며 2011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아프리카는 2011년까지 고용 성장률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 아프리카는 대다수 노동력이 비공식 부문과 농업 부문에 종사하여 오랫동안 고실업률과 취약 고용 우세 경향을 나타냄. 정부는 경기 부양과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서 선제적인 고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위기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층에 대한 사회 지출을 증가해야 할 필요성 증대.

1.9 결론

- 2009년 세계 경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뚜렷한 경기 후퇴를 경험함.

- 세계 무역과 자본 흐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초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피했으며, 2010년 더디기는 하지만 경제 회복이 예상됨.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성장은 간접적으로 세계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상품 수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아프리카에 대한 자본 유입을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빠른 성장을 촉진할 전망이다.

- 신흥국이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면서 아프리카는 2009년 하반기 경제 회복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함.

- 그러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2~2007년 달성한 경제 발전 속도와는 차이를 보이는 상황임. 2009년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은 인구 성장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1인당 소득 감소에 따라 실업과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따라서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에서 MDG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기 후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아프리카의 경기 회복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라 좌우될 예정임.

- 아프리카의 중장기 성장은 ODA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상품 수요와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1차 상품 수출을 줄일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될 것임. 여기서 우리는 한층 더 지속가능하고 빈곤 친화적인(pro-poor) 새로운 성장 전략 재고 필요. 이는 효과적인 성장 고용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더 많은 정책적 여지를 제공할 수 있고 개발 자금 조달원으로서 더욱 예측 가능한 국내 자원을 확대 동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제2장. 2009년 아프리카의 경제사회적 현황 및 2010년 전망

- 2009년 세계 경제위기가 아프리카에 가져다준 영향은 향후 나타난 제2차적인 경제적 악영향들로 인해서 더욱 분명해짐.
 - 수요의 감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출가격 하락, 해외송금 및 민간 자본투자 감소 등의 양상을 나타냄. 결과적으로 2008년 아프리카의 GDP가 4.9% 증가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단지 1.6%만 증가하면서, 지난 6년간 5%이상의 증가율 기록을 뒤집게 되었음.
 - 경제적 활동들이 위축되면서,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용 또한 감소하였고, 이는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로 한 MDG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개발과 관련한 전망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제2차적인 경제 악영향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정 및 경상수지의 격차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물가상승압력은 침체된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제한된 덕분에 다소 완화됨. 또한 식량 및 오일가격 하락, 북부 아프리카 및 서부 아프리카 일부에서 수확된 풍부한 농산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게 되었음.

- 이러한 경제적 배경 하에,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화정책은 비록 국가별로 정책을 완화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순응적이었음.
 - 많은 중앙은행들은 민간투자신용을 활성화하고 세계 경제위기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유동성을 높이고 이자율을 대폭 낮추었음. 유사한 목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경기순환과 반대되는 통화정책으로 일부 나누어 시행하기도 함.

-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부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 국내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늘림.

2.1 2009년 아프리카 경제성장 성과

2.1.1 성장률

2.1.1.1 2009년 급격한 경제성장률 감소 및 계속되는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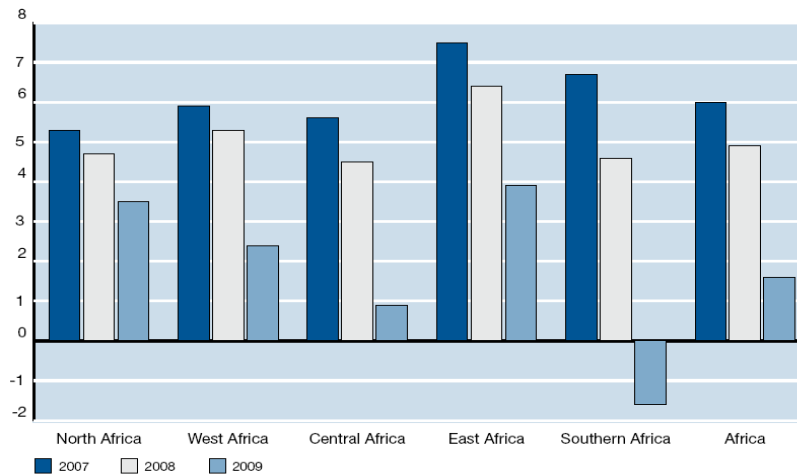
- ☐ 아프리카의 GDP성장은 2009년 감소추세.
 - 국가간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심지어 격차가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음.
 - 2009년의 경우, 29개국은 3%내지 그 이하 성장률을 나타내는 반면, 17개국은 3% 또는 5%를 겨우 유지하였고, 2개국(에티오피아, 콩고 공화국)은 7%이상 증가함.
 - 지난 2년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3%이상의 GDP성장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은 경제성장측면에서 상당한 퇴보로 볼 수 있음.
 - 또한 GDP성장은 석유수출국과 수입국사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석유수출국은 수입국보다 비교적 더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많은 석유수출국들이 세계 경제위기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경제구조에 있었기 때문임.
 - 오일가격 상승기간 동안 채택된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과의 조합은, 이들 국가들이 풍부한 대외지급자산을 보유하고 재정잉여를 가능케 하였으며, 대외부채를 낮춤으로써 보다 순응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위한 여유를 제공하게 된 것임(UNECA and AUC, 2009;IMF, 2009).
 - 일부 오일 수입국들은, 총 6개국(지부티, 에티오피아, 말라위, 모로코, 르완다, 우간다) 또한 5%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위기에 잘 견딤.

2.1.1.2 지역별 성장률

- ☐ 경제성장의 격차는 지역별 또는 지역 내 국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더욱 극심.

Figure 2.2

Regional growth performance 2007-2009, in percentage



Source: UNECA calculations based on UN-DESA, November 2009.

중앙아프리카

- 세계경제침체 기간 동안, 중앙아프리카의 경제성과는 2008년 4.5%에서 2009년 0.9%로 감소한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뒤쳐진 것.
- 적도 기니 및 가봉은 오일생산량 및 가격감소로 인해, GDP성장이 수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수입의 감소와 무리한 정부지출을 유발.
-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앙골라의 경우 2008년까지 지난 5년간 두 자리 성장률로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하다가, 2009년 단지 0.2%성장률만 기록함. 카메룬의 경우, 오일가격 및 생산량 감소, 목재 및 산업적 생산량이 주춤거리자, 최근 지속되었던 경제성장추세는 감소세를 보임.
- 중앙아프리카의 몇몇 다른 국가들은 완만한 경제성장률을 보임.
- 차드 및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경제는 비록 팔목할만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함. 차드의 경우, 정부공공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1.6%에 도달한 반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GDP는 2009년 완만하게 2.4%를 기록.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원조자금의 증가와 광산분야 투자증가로 인한 것임.

- 콩고공화국은 성장률이 단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오일 생산량증가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아, 2009년 7%를 상회한 증가율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였음.

동부 아프리카

- 동부아프리카는 세계경제위기로부터 비교적 잘 견뎌낸 편이었음.
 - GDP성장률이 2008년도 6.4%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2009년 3.9%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
 - 에티오피아의 경우 비농업분야, 특히 서비스분야의 활약과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해 GDP증가율은 7.5%를 기록하여 동 지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음.
 - 지부티, 르완다 및 우간다의 GDP는 5%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성장률은 지부티의 경우 인프라구축과 연결된 투자로 인해 지속되었으며, 우간다와 르완다의 경우 산업 및 서비스분야의 건실한 성장으로 이룩할 수 있었음.
-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제적 활동들은 상당히 주춤하였음.
 - 콩고민주공화국(DRC)의 경우, 광산 수출수입 감소와 이와 관련된 파급효과들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08년 6.2%에서 2009년 2.7%를 기록.
 - 농업분야 부진한 생산성은 에리트레아의 GDP를 주춤하게 만들었으며 2009년에는 0.3%만을 기록.
 - 지난 선거이후 발생한 폭력소요사태로부터 회생하던 케냐의 경제전망은 경제위기로 인해 중단되어, 겨우 2.5%의 성장 회복세를 보였음.
 - 정치적 불안정과 시민소요는 마다가스카르의 GDP를 0.4%만큼만 성장하게 하였음.
 - 세이셸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불안정한 거시경제 적자를 다소 해소하는데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경제활동은 여전히 위축되었으며, 서비스분야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GDP는 8.7%만큼 감소.

북부아프리카

-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보다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세계경제위기에 비교적 잘 견디어 냈음.
 - 비록 전 북부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체 아프리카 대륙과 국제적 기준들에 비하면 그 감소속도가 다소 완만한 편임.
 - 동 지역의 GDP는 2008년 4.1%에서 2009년 3.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로 이집트와 모로코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에 의한 것임. 이집트와 모로코는 각 4.7%와 5.3% 성장률을 기록.
 - 양국에서는 외부의 약한 수요가 주로 국내의 강한 수요로 상쇄되었으며, 이러한 국내수요는 전략적으로 잘 선택된 경기 역행정책의 재정정책과 느슨한 금융정책의 결과임. 공급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농업부분 생산량이 모로코의 경제를 지탱해주었고, 반면 활성화된 건설 및 통신업계 활동들은 이집트의 경제성장을 지탱해 주었음.

- 다른 북부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다소 완만한 GDP성장률을 나타냄.
 - 리비아, 모리타니, 수단, 튀니지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3%내외로 성장률을 기록.
 - 리비아의 경우 1.8%까지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기록하였고, 알제리의 경우 부실한 오일 생산성으로 인해 2.1%까지 하락.
 - 한편 튀니지는 제조업과 관광산업의 약한 생산성으로 큰 경제성장률에서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며, 모리타니의 경우 철광석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하락세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모든 하락세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GDP성장률을 저해하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결과적으로, GDP는 각각 모리타니와 튀니지에서 2.3%, 3%만을 기록.
 - 수단은 2008년 7.6%에서 2009년 3.5%로 하락하였고, 이는 주로 건설업 분야의 저조한 활동들과 해외직접투자금의 투입이 감소한데에 따른 것.

<박스.2.1> 세계경제위기는 분야별 사업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

세계경제위기는 과거 몇 십년동안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관광, 채광업과 같은 산업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생산량의 감소, 이에 따른 많은 실업을 창출하였다.(국제노동기구, 2009)

현재까지, 세계경제위기가 농업분야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실질 경제에 미칠 영향들은 이미 아프리카 수출품에 대한 수요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는 또다시 공산품가격의 하락, 신용부재, 동 분야의 투자감소로 이어지고 있었다.*. 농업부분의 낮은 투자는 결국 낮은 생산성을 유발하고, 불완전한 토지팽창을 유발하게 된다(UNECA and AUC,2009).

산업적 측면에서, 채광업체들은 낮은 수요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외국 채광업체들의 대부분은 대규모 투자계획은 축소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로 영향을 받게 된 광산업체들은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장운영의 보류(구리와 코발트), 탐사계약을 폐지(다이아몬드)하는 것들이었다. 비슷한 어려움이 보츠와나, 남아공, 잠비아 등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의 광부는 20만명 이상이 동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2009년 초반에는 또 다른 20만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공업 분야에서는, 공장들은 최소한의 유지 운영규모로 가동되고 있었으며, 고용의 경우 특히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우간다의 경우, 제조업체연합회(UMA)는 2008년 경영비용의 막중한 부담으로 15군데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이러한 공장들은 생선공장, 가죽 제조공장, 곡식 또는 담배 취급업체 들이었다. 레소토 또한 다자간 섬유협정을 종식하고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섬유수출분야의 급격한 감소세를 경험하게 되었다.

관광분야 역시 경제위기로 급격하게 타격을 받은 분야 중에 하나였으며, 관광으로 인한 입국, 수입, 호텔 예약 및 항공권 판매 등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최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이러한 관광 감소세는 최근 수입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경제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을 알려주는 계기였다.

*AfDB(2009). 재정위기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부 평가.

**우간다 경영 발전 프로파일, 2월, 2009

- GDP의 일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활력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특히, 석유 수입국들이 그러함.
- 한 예로, 최근에 과도한 공공투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탄화수소분야의 활기를 들 수 있음.

남부 아프리카

- 남부아프리카는 세계경제위기로부터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으로 GDP는 2009년 1.6%로 수축되었음.
- 지금까지 가장 큰 경제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가 경제위기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2.2%나 감소.
- 이러한 영향들은 민간 수요의 감소를 유발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산품 및 필수품등을 포함한 수출품의 수요 감소는 수출수입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다른 성장의 원동력인 외부 수요를 박탈.

-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의 긴밀한 재정 및 무역교역 의존으로 인하여, 특히나 남아프리카 관세공동체(SACU) 권역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성장률 감소세는 지역적 중요성을 내포하게 됨.
- 나미비아와 레소토의 GDP는 감소하였으며, 스와질랜드의 GDP는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매우 적은 수치였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재정유입의 감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인한 것이었음.
- 레소토는 광산업과 섬유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고, 나미비아의 경우 광산분야의 상당한 수축세로 경제 하강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각각 1% 및 0.7%만큼 감소.
- 스와질랜드의 경우, GDP는 단지 0.4%만 이는 제조업과 광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것이었음.
- 모리타니의 GDP는 2008년 5.7%에서 2009년 2.1%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수출수입 감소와 관광수입 및 해외직접투자 감소로 인한 것이었음.

- 보츠와나의 경우 특히 경제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GDP가 10.3%나 감소하였고 이는 2009년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감소세로서 다이아몬드의 가격 및 생산성의 감소에 따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국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한정된 수출품목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임.

- 한편 경제적인 여건만으로 놓고 볼 때, 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하게 황량한 것만은 아니었음.
- 상당한 기간의 경제침체를 겪었던 짐바브웨의 경우, 마침내 회복세를 보임. GDP는 3.7%만큼 상승하였으며, 이는 2008년 12.6%의 감소세로부터 회복된, 최근 10년간 가장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임. 이러한 경제적 회복세는 자본유입과 초인플레이션 후기의 재 재정편성정책에 도움을 받은 건전한 경제정책과 신용 회복으로 인한 것임.
- 모잠비크의 경제는 4.3%의 성장률을 보이며 강한 지속세를 보여주었으며, 최근 7년 동안 평균 8%을 지속한 것에 비하면 약간 떨어짐.

서부 아프리카

- 2009년 서부 아프리카의 성장세는 동 지역에서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여준 기니아의 0%에서부터, 동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나의 4.5%까지 나타내며 지지부진하였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3%성장률 근처에 머물렀음.
 - 가나의 GDP성장률은 최근 인상적으로 6~7%의 성장률을 보여준 것에 비해 2009년 4.5%로 다소 주춤하였음. 이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금값 상승과 시기를 같이한 대량의 금수출로 인한 수입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또한 농업 및 산업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기도 함.
 - 한편 기니아의 경우, 2009년 GDP의 침체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광산업과 건축 산업의 수축, 약한 보크사이트 수출가격과, 국제원조 감소, 증가되는 정치적 불안전성으로 인한 민간투자금 감소 등에 기인한 것이었음.
-
- 다른 지역에서는, 경제증가율을 비록 미진하기는 하나, 증가세를 보임.
 - 동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인 나이지리아의 경우, 다른 서부 아프리카에 비해 세계경제위기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경험.
 - 2009년 성장률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부 재정수입의 감소에 따라

공공수요가 감소하였으며, 긴축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민간분야 상당한 신용하락에 기인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영향들은 오일분야가 아닌 농업 및 통신 분야의 계속되는 인상적인 성과들에 의해 다소 희박해짐.

- 나이지리아 GDP의 감소는 국경을 넘어 여파를 남겼으며, 특히 베닝이나 그보다 덜 영향은 받기는 하였지만 니제르와 같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고, 이 국가들은 모두 나이지리아의 무역권내 의존하는 국가들이었음.

□ 코트디부아르와 토고의 경우 비록 완만하긴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상승한 유일한 국가들이었음.

-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2009년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광범위한 경제 회복세를 나타냄. GDP는 3.7%로 상승하였고, 이는 최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으며, 초기 서비스분야 회복세와 함께 높은 농업분야, 탄소, 채광 생산성에 기인함.
- 특히 이러한 경제적 회복세는 정치 및 안보상황이 안정적으로 변화됨에 따른 것이었는데 아이보리 위기에 관련된 모든 정당 및 관련자들이 와가두구 협정을 맺은 이후 이러한 안정세를 보이게 됨.
- 토고의 성장세 또한 2008년 1.1%에서 2009년 2.4%로 상승하였음. 토고의 경제회복은 도리어 약화된 수출수입으로 인해 낮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함.

2.1.2 대륙전반에 감소된 인플레이션

□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플레이션은 여러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국제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감소, 많은 국가들의 농업수확량 호전, 약화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감소된 수요압력, 경제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의 기본 식료품에 대한 국가 보조금 확대 등을 포함함.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소율과 그 정도는 국가별로, 또는 특정그룹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인플레이션은 오일수출국들 사이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오일 수입국들이 9.1%를 보인 것에 비하면 7.3%로 낮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외환차이로 인한 것이고, 주로 외환정책에 의해 미리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국제통화보유량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됨. 최근 축적된 상당한 규모의 외화보유고는 위기시의 완충장치가 되며, 많은 오일 수출국의 경우 오일 수입국보다는 자국의 외환시장을 개입하기 유리한 조건에 위치하며 따라서 외환율의 저평가를 제한하고 수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봉쇄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함.
- 가장 많은 가격감소 변화가 나타난 곳은 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기간을 끝낸 짐바브웨로, 인플레이션은 극적으로 2009년 3%로 낮아졌음. 후기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재정정책에 기인한 증가하는 통화 수요는 신용팽창으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함.
- 비교적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인플레이션은 아프리카 프랑스 공동체(CFA)에 속한 다수의 국가들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수치는 공식적인 목표인 3%를 훨씬 하회하는 정도이며, 유로화 대비 고정환율제를 적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프랑스 공동체(CFA)의 계속되는 평가절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임.
- 유사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플레이션도 변변치 않은 경제활동 및 국제 유가 및 식품가 하락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목표치인 3~6% 하한선을 웃도는 선에서 멈춤. 더욱이, 가격절감속도는 임금 수요와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상승함에 따라 낮아지게 되었음.
- 나이지리아의 인플레이션은 긴축재정정책에 따라 상당히 완화되었음.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가나, 시에라리온, 우간다, 잠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증가함.
 - 에리트레아의 높은 인플레이션 증가세는 낮은 농업생산성에 기인한 것이었고, 앙골라는 소비자상품의 수출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공급

감소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잠비아와 우간다의 경우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 콩고민주공화국 및 시에라리온의 경우 초과된 화폐 유동성 때문이었음. 계속해서 높은 지표 인플레이션,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와 우간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나타냄. 이러한 현상은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신용성 증가를 나타내 주는 것임.

2.1.3 팽창적인 통화정책

- 경제적 활동들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락함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통화정책을 완화하여 경제회복을 지원코자 함.
- 15개의 아프리카 프랑스 공동체(CFA)의 2개 중앙은행은 완화된 통화정책을 사용.
 - 이자율을 낮추고 지불준비금 요구액은 낮추어 국내 신용을 부흥하여 아프리카 프랑스 공동체(CFA)지역내 경제성장을 위한 자극을 꾀함.
 - 이러한 비슷한 목적으로,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여러번 낮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화인 랜드(rand)에 부분 또는 전적으로 연여있는 일부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자국 통화의 지표로 삼는 남아프리카 중앙은행의 행보에 따라 급격히 이자율을 낮춤.
- 2009년 초기 나이지리아의 통화정책은 긴축정책이었으며,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함.
 - 결과적으로, 통화 및 신용통합은 느린 속도로 확대되었음. 이러한 정책기조는 통화정책 결정자들이 정책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반대로 바뀜.

- 유사한 조치로서, 경상수지 불균형에 직면한 상업은행들에 대한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재정적 지원 또한 국가 유동성을 증가하는데 일조.
-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재무부와 중앙은행 사이의 제한적인 조합으로 인해 유동성 관리가 어렵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유동성 과다를 초래하게 됨.

2.1.4 일부 수용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재정균형 격차는 커짐

- 세계경제위기의 결과로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아주 소수의 국가들만 흑자를 기록.
 - 평균적으로 이러한 재정균형적자는 감소된 외부 지원과 긴축되는 국제 신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시킨 공공지출과 이에 대비 감소되는 공공수입의 조합의 결과임.
- 2009년 및 2010년 예산에 나타난 재정충격지수의 주요 요소가 개인의 세금 감면초치였던 나미비아와 같은 중소득 국가를 제외하면, 재정부양정책들은 수입에 근거한 조치보다는 지출에 더 중점을 두고 실행.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였으며, 2009년 및 2010년 예산안에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견고히 하는 조치들을 선택.
 - 이러한 부가적 지출 조치들은 중·장기적인 우려사항들, 즉, 경제침체로 인한 국내 수요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장기 국가 성장률을 증가세로 돌리기 위한 것들이었음.
- 유사하게, 임의적인 재정충격지수는 알제리, 카보베르데, 이집트, 르완다와 같은 국가에서 공공투자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공급수용 능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인프라구축 병목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음.

- 2009년 및 2010년 예산 하에, 에티오피아는 전년도 책정 공공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부르키나파소와 튀니지에서는 2009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활성책을 실시함.
- 가나와 스와질랜드는 공공서비스 임금은 정부공공지출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분야 최근 지출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정부 지출로 설명할 수 있음. 이러한 강력한 정부지출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이 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안보 및 인도적 지원 비용의 증가에서도 나타남.
- 그러나 공공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활동자체가 둔화된데 따른 약화된 수입과 낮은 세금으로 인한 관세수입의 감소로 정부 수입은 줄어들게 됨. 세금수입은 여러 국가에서 목표치보다 아래를 기록하였으며, 재정 적자는 증대됨.
- 아울러, 차관 및 비차관 모두를 포함한 외부 금융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많은 정부들은 국내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됨. 이는 외부 환경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호의적이었을 당시 국내적으로 신중한 재정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음(UNECA and AUC, 2009; IMF, 2009).
-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충분한 재정적 여유분을 보유하거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억행정책을 가능케 하는 여유자금을 활용할 정도는 아니었음.
 - 특히, 정치 및 안보측면에서 취약한 국가들은 균형현금예산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및 국외 보유고에 대해 엄격히 제한된 지출을 해야 했으며, 경제적 침체에 대응할 융통성이 부족하게 됨.
 - 이러한 메커니즘이 거시경제적으로 안정성을 이루게 해주는 반면, 경제적위기시 대응에 필요한 재정적인 공간을 제한하고,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전쟁이후 지역

의 사회적 안전망들을 더욱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됨. 또한 보츠와나와 같이 강한 초기 재정정책을 취한 국가들은 재정적 불균형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삭감정책을 취함.

2.1.5 실질실효환율은 국가별로 다양

- ☐ 한 국가의 외부 가격 경쟁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실질 평가절상을 경험하였음.
 - 유로로 공동 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유로가 다른 국가들의 통화 대비 가치를 얻게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15개 아프리카 프랑스 공동체(CFA) 실질 자국의 환율이 평가절상 됨.
 - 유사하게, 실질환율이 남아공에서 평가 절상되었는데, 이는 교역국들에 비해 계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긴밀히 연계된 무역환경과 현재 공동 화폐동맹으로 인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연결된 화폐 때문에, 보츠와나와 나미비아는 실질 평가절상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일부분 또한 남아공의 수출 인플레이션 때문임.
 - 다른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실질 평가절상을 경험한 국가들은 리비아, 카페베르데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명목환율이 평가절상으로 인한 것임.
- ☐ 수단의 예처럼 실질실효환율이 평가 절하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명목 환율이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영향들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절하토록 내버려두었거나,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이들 대부분은 변동환율제를 쓰거나 변동환율제에 비슷한 정책을 쓰는 국가들이었음.

2.1.6 경상수지 악화

- ☐ 아프리카의 국제수지는 2009년 3.2%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수출수입이 수입보다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었음.

- 내륙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높으며(8.9%), 이는 주로 내륙으로의 높은 무역비용과 국제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는 한계들로 인한 서비스 경상수지적자에 기인한 것임. 또한 오일수출국들은 오일수입국들(6.2%)보다 더 낮은 적자(0.7%)를 기록하였음.
- 경상수지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악화.
 - 오일 수출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아주 잘 보여줌.
 - 오일가격의 하락은 수출수입의 감소로 이어짐.
 - 경상수지 적자는 오일 수출국 중 만성적인 적자를 겪는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에티오피아, 니제르, 짐바브웨가 그런 나라들임.
- 비록 아프리카 국가들인 전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든 감비아, 케냐, 르완다, 남아프리카, 토고 등이 경상수지의 균형을 잘 보여줌. 튀니지의 경우 해외송금 및 관광수입의 회복세는 경상수지 적자의 감소를 가져왔고, 가나, 말리, 탄자니아와 같은 금수출국은 국제수지의 흑자덕분에 감소세를 상쇄.
 - 경상수지의 적자 감소는 때때로는 실질 적응과정을 반영하였는데, 제한된 외부 자본접근은 국가들로 하여금 인프라 투자를 동결시키거나 지연시키고 생산력 향상에 더 집중하는 과정에서 나타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에리트레아, 토고와 같은 국가가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됨.
- 경상수지 적자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었는데, 이는 일부분 수출 수준이 유지되었기 때문.
 - 우간다의 경우 이웃국가들로의 막대한 식량수출로 인해 현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커피와 같은 전통적인 수출품의 감소를 크게 상쇄함. 마다가스카르의 수출은 아주 조금 감소하였는데, 갈철광의 최근 수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

□ 세계경제위기로 경제침체에 돌입함에 따라, 아프리카로 자금흐름 또한 상당히 줄어들게 됨. 자본흐름이 침체되고 외환율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증가되는 가운데, 경상수지의 적자는 과거 몇 년간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빠른 속도로 사용하게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고 현황은 이집트, 잠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일부 IMF로부터 할당된 특별인출권(SDRs) 때문이었음.

□ 세계경제위기는 여러 과제들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닌 외환보유고 한계와 감소를 나타냄. 위축된 외부 금융시장은 생산에 필요한 투입품목의 수입을 제한하였고,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협에 빠뜨리고,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함.

2.2 최근 아프리카 사회적 발전 동향

- 세계경제위기 기간을 포함한 MDG 목표 달성의 전반적인 성과는 혼합적인 측면이 있음.
- 아프리카지역에서 초등학교 등록률, 홍역예방접종, 살충제 처리된 침대 모기장 사용, HIV 유병률 감소 및 여성평등 측면에서 발전 등을 포함하여 사회발전 부분의 비약적인 진전들이 나타난 반면, 빈곤 감소 및 근절, 모자사망률 감소(MMR), 소득 및 무능력, 성별에서 오는 차별 금지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임.

2.2.1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사회과제

- 아프리카 인구는 2008년 9억8천7백만 명에서 2009년 2/3%증가한 10억 명으로 증가함(UNFPA, 2009).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의 인구는 젊은층이며, 나이가 30대 미만인 청소년층이 인구의 70%이상을 차지함(UNECA, UNFPA and AUC, 2009). 노인층의 인구 비율은 2007년 대륙전체 인구의 5.3%를 유지하면서, 200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3.1%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인구증가율과 도농간 급격한 이동 인구는 아프리카의 도시화

를 촉진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가별로 도시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 건강, 교육, 사회안전망 서비스,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점차적인 요구 증가 등과 같은 여러 사회·경제적 과제를 발생시킴.

2.2.2 빈곤, 식량 미확보 그리고 실업률 증가

- 아프리카 수입과 관련된 빈곤 자료는 불완전하며, 이는 국별 및 지역별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발전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젠더별 구분된 데이터의 부족함.
- 2005년 중부, 동부, 남부 및 서부 아프리카의 최저빈곤선 이하 생활하는 인구비율은, 새롭게 조정된 1일 1.25 달러 미만 인구를 사용했을 경우, 북부아프리카의 3%에 비해 51%나 됨(UNITED NATIONS, 2009). 북부 아프리카 또한 최저빈곤선 이하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이 1990년 3%에서 2005년 4%로 증가함(United Nations, 2009).
- 최근 세계경제위기는 아프리카의 빈곤인구 비율을 더욱 증가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직과 연계된 생활수입 감소, 해외이민자 송금 감소, 정부의 사회적 분야 투자 감소 등에 기인함.
- 한편으로, 중부, 동부, 남부, 서부 아프리카의 실업률은 2003년 8.5%에서 2008년 7.9%로 아주 적은 수치 감소함(ILO, 2009). 이러한 추세는 2009년 섬유, 건설, 관광업 등과 같이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의 실직률 뿐만 아니라 광산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대규모 해고로 인해 역행될 것으로 예상됨.

2.2.3 초등학교 출석률 개선,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을 증가 추세

- 최근 아프리카지역에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은 일반적이며, 젊은층과 여성들을 위한 공식 일자리가 적음(제5장 참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부진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흡수 미비, 공공분야 축소, 민간분야 투자 비활성, 교육 및 숙련노동자 부재 등임.

- 교육부문은 특히 아프리카의 실업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함. 이는 인적자본개발, 효율적인 경제 및 정치 참여, 건전한 인력구성 요소 중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며, 교육이 기술진보 및 자본 축적, 구조적 조정을 통해 한 나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필수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임(UNCTAD, 2006).
- 향상된 생산성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성장은 또한 가난한 계층의 사회적 환경들이 개선이 되어야만 이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개선은 잘 계획된 고용창출과 사회 안전망을 위한 정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음. 따라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의 노동기술수준이 높아지면 현대 경제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인구의 교육수준이 동시에 경제발전과정의 투입요소가 되며, 경제발전의 결과물이 됨(UNECA, 2001.).
- 중부, 동부, 남부 및 서부 아프리카의 평균 초등학교 등록률은 2006년 71%에서 2007년 74%로 증가하였으며, 북부아프리카의 경우, 순 초등학교등록률이 2006년 91%에서 2007년 96%로 증가함.
- 초등학교 등록률의 개선은 주로 정부의 강력한 초등학교 시설 확대, 학교 등록금제 폐지, 원조 국가들의 지원 등에 힘입어 이루어짐 (United Nations, 2008).
- 만약, 현재비율이 유지만 된다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인 2015년까지는 총 100%의 초등학교 등록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초등교육에 투자할 정부 및 원조 자원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칠 확률이 높아짐.
- 비록, 초등학교등록률이 개선되고 있을지라도, 초등학교 졸업률은 또 다른 문제이며, 특히 여아들일 경우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요 중퇴율의 원인으로는 학비유지 불가, 가사일(특히 여아들의 경우), 조혼, 아동 노동, 십대 임신, 저급의 교육 및 학교까지 긴 통학거리 등.
- 초등교육의 질은 교과서, 컴퓨터 및 위생, 물 부족 등과 같은 학교 시설의 부족으로 점차 악화될 수 있음. 특히 HIV/AIDS의 결과로 선생님의 수가 부족한 것 또한 주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중부, 동부, 남부, 서부 아프리카의 중고등 및 직업교육의 총 비율은 비록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현저히 두드러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음.
- 실업률은 교육정도에 따라 낮아질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는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더 좋은 교육기회를 가질수록,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소수의 공공분야 직업을 얻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많은 졸업생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
-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생 또한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직장과 불균형한 매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2.4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매우 낮으나, 일부 국가에서 진전

- 2007년 이후, 약 12개의 국가들이 국회에서 여성의원 대표수 증가세를 보임. 르완다, 앙골라, 레소토, 세네갈, 카메룬, 지부티, 스와질랜드, 가봉, 부르키나파소, 토고, 베닝, 케냐 등.
- 2009년 의회에서 가장 높은 여성의원 좌석수를 차지한 국가들은 르완다(56.3%), 앙골라(37.3%), 모잠비크(34.8%), 남아프리카 공화국(33%), 우간다(30.7%), 브룬디(30.5%), 탄자니아(30.4%), 나미비아(26.9%), 레소토(25%), 세실리아(23.5%), 튀니지(22.8%), 모리타니(22.1%), 에리트레아(22%), 세네갈(22%), 에티오피아(21.9%)임.
- 비록 선거에서 여성당선자의 참여가 현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부서 및 위치에서 여성수는 남성의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
- 내각에서 여성들의 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으로, 아프리카는 여전히 아프리카 연합이 여성평등에 관한 솔로몬 선언에서 발표한 50:50의 성비균형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UNECA, 2009).
- 여성에 대한 폭력(VAW)은 아프리카의 계속되는 문제로 남아있음.
- 가정 내 폭력, 성폭력, 여성 및 아이들의 불법 노예화, 악법적 관습들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

-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CPD) 석상에서 지역별 검토결과(UNECA, UNFPA and AUC, 2009), 각 국가들은 여성폭력이 남성과 여성간 불균형적인 권력구조 관계에서 발생했다는데 동의하고, 관습적 규범과 관행에 의해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였음. 특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및 콩고, 시에라리온의 경우 분쟁지역이며, 부녀자 및 여아들의 성폭력 발생이 빈번하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임.

2.2.5 보건 분야, 혼재된 진전

- 아프리카의 평균 수명은 남성의 경우 2009년 55세, 여성의 경우 57세로 추정됨(UNSD, 2009).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각 국가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와 모리셔스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모두 70세 이상의 평균수명 기대치를 갖는 반면,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스와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남성 및 여성 모두 46세 이하의 평균수명 기대치를 보임. 이는, 주로 AIDS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받고, 특히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동지역의 평균수명은 1990년도부터 1995년 기간 동안 61세로 높아졌다가 AIDS로 인해 2005년 50세로 점점 줄어들게 됨. 이러한 만성질병은 여성 및 여아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침(UNAIDS, 2009).
-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예방 프로그램과 질병통제의 결과로, HIV 유병률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안정화되거나 또는 감소함.
- 어른의 HIV 유병률은 중앙, 동부, 남부 및 서부 아프리카에서 2001년 5.8%에 비해 2008년 5.2%로 감소함(UNAIDS, 2009).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행동변화의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15에서 24세의 젊은이들의 전염병예방을 예측하게 됨.
- HIV 유병률은 북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1%미만),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 9개국에서 10%이상을 초과함.
- 항레트로 바이러스성 치료(ART)의 확산으로 인한 진전은 금번 세계경제위기로 중단될 가능성이 많아졌으며, 이는 주로 그러한 치료

들이 정부 또는 원조기관에 자금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임.

- HIV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계층.
- 식량위기 또한 HIV보균자들이 치료동안에 섭취해야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들의 면역체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게 되어 상황을 악화시킴.

□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등 전반적인 추세는 북부아프리카만을 제외한, 아프리카 중부, 동부, 남부, 서부에서 증가추세.

- 2007년, 결핵 유병률은 중부, 남부, 동부 및 서부 아프리카에서 10만 명당 421명으로(HIV감염자수 제외), 1990년대 10만 명당 333명 대비 증가(United Nations, 2009),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결핵 유병률은 1990년 10만 명당 65%에서 2007년 10만 명당 44%로 감소함.

□ 말라리아는 여전히 아동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빈혈은 임산부에게 있어서 주요 사망원인으로 작용함.

- 비록 말라리아 발생률 및 사망률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 질병은 여러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06년 WHO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집계에 따르면 10만 명당 104명의 평균 사망률을 나타냄(WHO, 2009).
-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은 특히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와 같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거의 근절 되다시피 하였음. 남부 아프리카 일부, 에티오피아 고지대, 케냐와 같은 일부지역에서는 고질적인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유아 및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은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비록 국가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시골지역 및 가난한 가구에서 더 높은 사망률을 기록함.

- 5세 이하 사망률의 경우 중부, 동부, 남부, 서부 아프리카지역은 2006년 1,000명의 출생아 대비 160명에서 2007년 1,000명당 145명으로 감소(United Nations, 2009).

- 북부 아프리카의 경우, 5세 이하 사망률이 1990년 1,000명의 출생아 대비 83명에서 2007년 1,000명 당 35명으로 감소하는 놀랄만한 진전을 이룸.
 - 높은 유아 및 5세 이하 사망률은 말라리아, 폐렴, 설사 및 영양실조와 같은 질병에서 기인함.
- 반대로,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 선염(MMR)등은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륙전반에 걸쳐 예상치 않게 높은 수치를 나타냄.
- 2005년, 그 비율은 중부, 동부, 남부 및 서부 아프리카에서 신생아 10만 명당 900명(1990년대 920으로부터 감소된)을 기록.
 - 몇몇 국가들은 매우 높은 신생아 10만 명당 1,000명으로 매우 높은 MMR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앙골라, 브룬디, 차드, 말라위, 니제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비사우,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및 르완다 등이 그에 해당하는 국가들임(WHO, 2009).
 - 이러한 현상은 모리셔스, 세이셸과 같은 국가들과 반대되는데, 양국은 튼튼한 보건 인프라구축과 질병관리 기술로 아주 낮은 MMRs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임(UNECA, UNFPA and AU, 2009).
 - 약 80%의 산모사망률이 적절한 산모 치료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만 제공되어도 예방 가능함.

2.2.6 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 분배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

- 비록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깨끗한 물 및 위생측면에서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음. 2006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은 사람의 비율은 24개국에 걸쳐 60%를 조금 상회함(UNECA, AUC and AfDB, 2009).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또한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존재함. 북부 및 일부 남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시골지역의 거주하는 대부분은 그러한 시설에 접근이 제한됨.
- 아프리카의 MDG 목표 달성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2.2.7 취약계층의 사회적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 사회적 개발요소들의 더딘 발전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의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층은 노인, 청소년층, 장애인, 고아, 국내피난민, 난민, 소수 토착 민족들을 포함.
- 사회로부터 제외된 이들 그룹은 그들의 낮은 소득수준이나 노동시장에서 낮은 생산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측면에서 낮은 참석률, 더 낮은 보건 상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 등으로 확산.
-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진전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정책, 법, 사회 안정망 조치 측면에서 두드러짐.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을 사회적반적인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들은, 정책적인 공약 및 실행의 부재; 사회안정망을 실행하기 위한 불충분한 재정자원; 기술적 능력 부재; 정책 지원을 위한 적절한 자료 부족; 전쟁 및 분쟁 등과 같음.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참여 필요성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 위기로 인해 더욱 그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위기들은 여성, 아이들, 장애인 또는 노인들을 포함한 극빈계층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임. 이러한 위기의 영향으로 현존하고 있는 국가 사회적 보호 시스템에 대한 강화 요구가 강력해 졌으며, 모든 취약계층들이 개발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행요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2.3 2010년 전망과 손실위험

2.3.1 2010년 예견된 경제적 회복세 그리고 위험들

- 아프리카의 GDP경제성장은 2009년 1.6%에서 2010년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예상된 경제회복세는 국내 및 국제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이루어질것으로 보임.
- 국제경제의 회복세는 수요의 증가와 함께 특히 미네랄, 탄화수소, 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부분에서 아프리카 수출품 가격의 상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수출품 수입에 대한 증가로 이루어지게 됨.

- 증가된 수출과 함께, 민간투자, 특히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는 비록 점진적이거나 2009년 후반기에 시작된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회복세는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춤했던 인프라 분야, 광산분야, 제조업분야의 주요 투자를 회생시킬 것임. 또한 경제적 활동들이 선진국에서 보다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아프리카 교민들에 의한 해외송금이 다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주요 경제성장력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를 활성화 하게 될 것임. 이러한 외생적 요인들은 국내 조건들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비록 아직 약하기는 하나, 경제 회복세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요 원동력으로 여러 아프리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 및 통화 활성화 정책들이 있을 수 있음.

- 국가 예산 범위 내 인프라구축 및 사회분야 투자를 목표로 한 재정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부터 혜택을 받은 국내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전 현상과 같이, 회복세 및 성장세는 국가 및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동부 아프리카 지역은 계속해서 지역 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고(5.3%), 그 다음 서부 아프리카(4.7%)가, 북아프리카(4.15), 남부 아프리카(4.15), 그리고 중앙아프리카(3.8%) 순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가장 강력한 회복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월드컵 유치로 관광 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는 광산분야의 성장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DP성장을 3.1%까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두 국가(콩고공화국 및 에티오피아)에서 2010년 총 4개의 국가들(앙골라,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우간다)이 7%이상의 경제성장

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수치 이상 경제가 성장해야 2015년까지 빈곤감소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콩고공화국과 앙골라의 경제는 각 12.2%와 9.3%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오일생산량 증가와 비오일분야, 특히 공공부분의 투자활성화로 인한 건설 및 농업과 같은 분야의 성장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 대표적인 농업국가인 우간다와 에티오피아는 또한 7%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두 국가는 서비스와 산업부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경제회복의 원동력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인 적도 기니는 오일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성장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기니와 마다가스카르의 불완전한 정치상황은 국제원조자금과 민간자본의 막대한 감소를 유발하고 2010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두 종류의 그룹들에 속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GDP성장이 3 또는 7%이내를 기록할 것으로 예견됨.

□ 인플레이션은 2010년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최근 두 자리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국가들의 급격한 가격 감소를 반영한 것임.

- 가격 상승세는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가나,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서 제한된 외환 평가절하 또는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격 상승세를 경험.
- 앙골라, 콩고공화국, 가봉과 같은 오일 생산국의 증가하는 정부지출은 비교역상품의 가격을 상승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연료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계속되는 명목환율의 평가절하와 재정적자로 인한 화폐발행 증가는 에리트레아, 기니아, 모리타니와 같이 이미 물가상승률이 높은 나라의 가격을 더욱 상승케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2.3.2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손실위험

- ☐ 국제 경제정세에 대한 전망 아직은 불투명.
 - 예상치보다 낮은 국제경제의 회복세 또는 재 경기침체 또는 다른 국제경제위기 발발 등은 아프리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 국제경제가 예상된 속도로 회복을 하더라도, 아프리카 경제의 회복은 국제경제 회복에 뒤처져서 민간 및 무역자금이 충분히 재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많은 아프리카 경제가 농업분야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와 연관된 급격한 날씨 변화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 마지막으로, 손실위험은 정치 및 안보상의 불완전한 상태와 연계, 다른 어떤 예상치 못한 정치 및 경제적인 불완전성은 특히 2010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라들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2.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 아프리카의 GDP성장세는 최근 국제경제침체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또한 사회적 개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 세계경제위기에 비교적 잘 견디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광범한 분야를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들이고, 비록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었으며, 생산기반과 수출기반을 다양화하면서 상품수출수익을 광범위하게 저축해두었던 국가들이었음.
 - 이것은 바로 아프리카의 장기적 성장전망과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

광범위한 사회개발이 경제적 다변화에 달려있음을 의미(UNECA and AUC, 2007).

- 아프리카에 맞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거시 경제정책, 구조적 정책들, 기관 개혁들은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어야 할 것.

□ 통화정책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감소에 기여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을 조정하고 통화정책결정기관으로서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됨.

-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증가한 투자, 경제성장, 다각화 그리고 고용창출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는 희박함.
- 당면 과제는 이러한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단순히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기 보다는 고용창출이나 경제를 활성화 하는 실질적인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임.

□ 재정정책은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 국가들이 취했던 것처럼 인프라구축과 사회적 기본 서비스를 목표로 삼아야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

- 장기간의 재정 안정성은 그러나 지출이 균형 있는 국내자원의 이용가능량과 부합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금액의 원조를 제공하려는 노력 또한 이러한 재정적 한계를 드러낸 국가들에게 호의적으로 증대되어야 함.

□ 어떠한 환율제도를 사용하더라도, 국가들은 자국의 무역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절한 실제 환율 달성 노력에 직면하게 됨.

□ 인프라구축분야, 인적자본, 생산성집약적 활동들에 대한 지출 증대는 경제전반의 생산성 및 경쟁력향상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

□ 건전한 거시경제정책하나로는 아프리카 전반의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움.

- 그것들은 구조적 그리고 기관차원에서 노력과 함께 보완되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들은 예산집행 능력을 강화하고 공공재의 개혁성과를 보고하는 것들을 포함.
 - 또한 긴급하게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는 바로 은행과 금융 산업인바, 유동성 및 금융위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에 대한 노력들은 모든 금융기관, 연금펀드와 같이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분야까지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구조조정 절차와 더 나은 계약이행 강제 등을 포함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민간분야 개발, 투자, 경제 다각화, 성장회복, 고용창출 및 빈곤감소등에 기여할 것.
- 더 광범위하게는 MDG 목표 및 다른 사회적 개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회적 개발과 성평등 이슈를 개발목표에 최상단에 두어야 함.
- 그 이슈들은 빈곤 및 기아와 싸움; 고용 및 모두를 위해 열려있는 상당한 고용기회 창출; 교육으로 접근성 강화; 건강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성평등 촉진; 취약계층그룹의 사회적 참여;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정책 설계; 사회적 안정망 강화; 산모사망율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이슈; 평화와 안보 촉진; HIV.AIDS 예방 및 치료 확대; 그리고 정책개발을 알려주는 자료 분석과 수집능력 강화 등임.

제3장. 2009년 선정된 아프리카의 새로운 개발이슈

- 2009년의 무역협상에서는 특별한 발전이 없었으나, 농업과 비농업 시장 접근(NAMA) 분야는 규정, 무역 촉진, 서비스 등과 마찬가지로 주요 영역임.
- 아프리카 개발 재원은 경제 침체와 기후변화의 영향 완화의 필요성에 의해 복잡하게 구성됨. 기후변화 영향 완화 이슈들은 고용을 창출하여 아프리카 경제 역량에 영향을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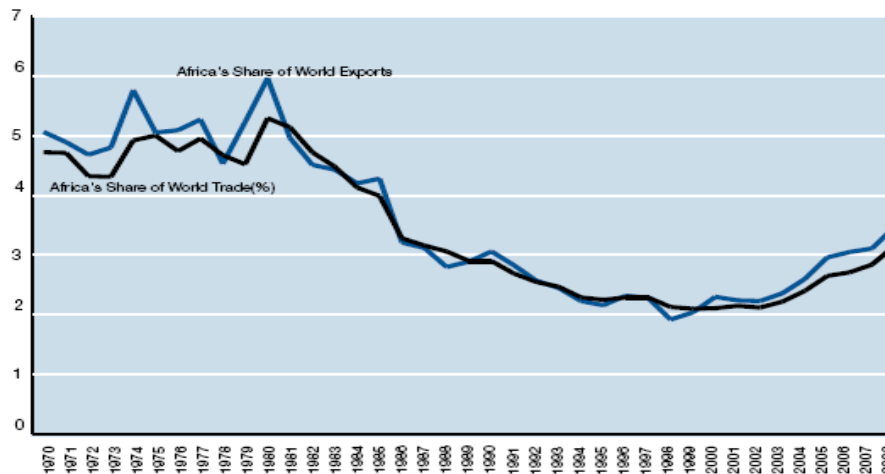
3.1 2009년 국제 무역에서의 개발

- 개발 자원 중 외부 자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은 세계경제 위기의 주요 통로라 할 수 있음.
- 3장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적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현황을 살펴보기로 함. WTO 도하 개발 아젠다, 경제 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s) 그리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이니셔티브 하의 국제적인 무역 협상을 짚어봄.

아프리카 무역 현황

Figur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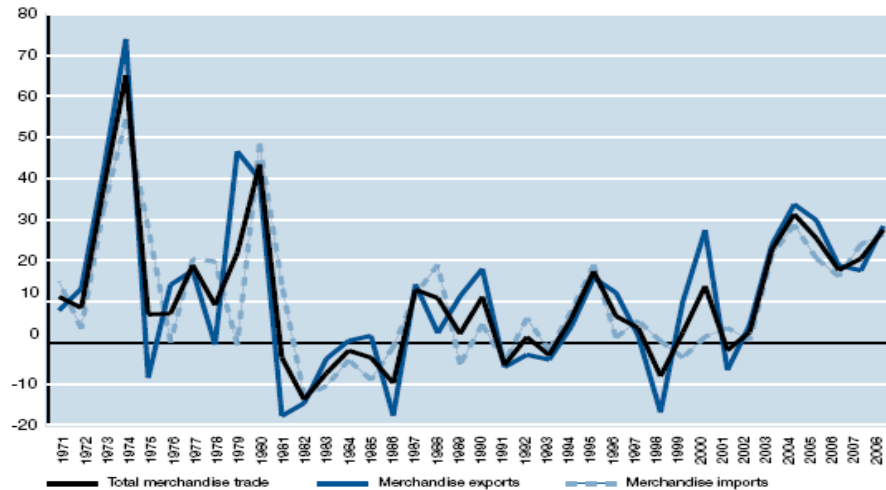
Africa's share in global merchandise trade (%)



- 아프리카 무역의 가치는 아프리카 수출 포트폴리오를 지배하고 있는 상품가격의 상승과 함께 꾸준히 증대되어 왔음.
- 아프리카 무역 총액의 세계 비중이 2007년 2.8%에서 2008년 3.2%로 소폭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재정위기 이전 2008년 중반, 상품 가격의 대폭 상승에 따름.
- 아프리카 무역은 변동이 심하고 경기순응적(procyclical)이며, 세계 경제 개발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됨.

Figure 3.2

Year-on-year growth rates of Africa's merchandise trade



Source: WTO, 2009a.

- 아프리카의 상품 무역은 상품 목록과 수출 대상 모두 다양하지 못함. 농업, 광물 및 연료 상품은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수출의 대부분이 유럽 및 북아메리카로 들어감. 아시아 중 특히 중국, 인도로의 수출이 눈에 띄는 변화이기는 함(UNECA, AUC 2009 참조).
- 더 나아가, 아프리카는 그들의 전략적 관심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구조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 아시아의 경제 부상·성장과 함께 아프리카 무역은 제조품과 서비스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구성이 실제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임.

서비스 무역에서의 아프리카의 비중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2000~2008년 사이 37.2% 상승한 노동자 송금은 서비스 무역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임. 송금은 아프리카 지역 서비스 무역의 가치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어 왔음.

국제 무역 협상의 WTO 도하 라운드에서의 개발

- 국제시장개방이 경제 위기 상황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인식하에 협상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국제무역 협상의 획기적인 성과는 없었음. WTO 회원국들은 보호주의 정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감시를 강화하였고, 동시에 이의 필요성을 도하 라운드를 매듭짓는 방식으로 사용함.
- 농업과 비농업 시장접근은 여전히 중점 분야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고용은 농업분야에서 유지되고, 제조업 분야 고용이 커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농업 분야 산업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 따라서, 도하 라운드 결과물의 개발 내용에 대한 결산은 농업과 비농업 시장접근 부문 협상의 결과를 평가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품 수출을 위한 외국 시장 개방의 도구로서 도하 라운드의 성공적인 체결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음.
 - 농업은 협상의 전체적인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임. WTO 회원국들은 계속해서 비농업 시장접근 양식이 회원국의 개발 관심사를 반영해야 하며, 기대 약정액으로 탈산업화 및 중대한 실업문제가 야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논쟁하고 있음.
- 2009년에는 도하 양식에 대한 특별한 진전은 없었으나, 2010년 협상에서 논의될 주요 정치경제적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개발이슈는 G20 포럼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적 거버넌스 구조(architecture)의 진화임. 이 새로운 구조는 글로벌 경제 우선순위의 질서에 영향을 주고 있음. 2009년의 G20에서 지구적인 경제 회복에 시장 개방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하 라운드를 매듭짓는

정치적 결정이 도출될 것을 기대되었으나,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 협상과 같이 떠오르는 세계적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됨.

- 정치경제적 협상 프로세스를 재조정함.
- 양자 프로세스에 의한 새로운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2005년 12월 Hong Kong Ministerial Decision의 재정비 가능성. 아프리카 관점에서 도하라운드의 힘은 농업과 비농업 시장접근이므로, 이 순위의 변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시장 접근에 대한 협상 외에 최빈국에 대한 면세 및 시장 접근의 쿼터 제한 폐지는 이행되고 있음. 도하 라운드 프로세스 가운데 숨어 있었던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도 마찬가지로 이행중임.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통해 얻은 자원으로 규정, 무역촉진, 어업 분야 등의 협상에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함.

□ 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개발 요소들을 반드시 도하 라운드 내에서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임.

- 개발 이슈들은 고용 창출 및 고용 보호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업과 비농업 시장접근 이슈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동의함.

□ 아프리카의 입장에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발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 개도국특혜대우(SDT) 강화, WTO 규정 개선을 위한 이행 이슈들의 해결, EPA와 역내 무역 협의에서 SDT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 24의 개정, 미국과 유럽 농업 보조금에 대한 감소·폐지 및 효과적인 제재, 개발도상국에게 효과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새로운 특별안전장치(SSM), 선진국의 노동 시장에 개발도상국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서비스의 진전, 최빈국에 대한 효과적인 면세, 쿼터 제한 폐지의 시장 접근, 최빈국에 대한 시장 접근 의무조항 제외, 비농업 시장접근 이행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연성, Mode 1,2,3 서비스에서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혜택, 개발도상국을 위한 자국 내 서비스 규정의 유연성임.

EPA 협상의 현황

- EPA 협상 안의 관심사와 도전과제들은 특히 아프리카 지역 통합과 관련하여 영향을 가지고 있음. 2009년에는 EPA 협상으로 인한 특별한 변화는 없었음.
- 아프리카 지역 통합을 지지하고 EU와 좀더 굳건한 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EPA의 본래의 목표는 협상의 미결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임. EPA의 도전과제는 아프리카 통합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남아 있으며, 최종적으로 EPA의 본래 목적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2009년의 중요한 진전사항은 African Minister of Trade가 AUC와 UNECA가 EPA 협상의 조정을 위해 함께 준비한 지역경제공동체(REC) 안내서인 EPA Template을 승인해 준 것임.
- EPA 협상의 논쟁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모든 집단들의 경험이 공유되어야 함.

EPA 협상의 영향, 진전에 대한 견해, 논쟁적 이슈의 성과 및 과제

- 2009년에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본 통합에 관한 협상에 주력함. 수출에 대한 세금, 양적인 제한, 초기 산업, EPA Parties에 대한 정의, MFN 조항, 서비스업, 그 밖의 안전장치들에 대한 EU와 아프리카 국가간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됨.
- 동남아프리카에서 EPA는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국가들 대부분이 포함된, 지역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었음.
- 농업 협상 부분에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EU 수출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동남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업 보조금과 안전장치를 연결시키는 작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집단화를 위한 전체적인 EPA는 2010년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

- 서아프리카에서는 채택된 지역 전략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중임.
 - 2009년에는 민감 상품을 선정하고 EU 시장의 접근을 준비하는데 주력함. 이 지역의 목표는 자유화로부터 제외된 상품을 40% 유지하는 것이었음. EPA 개발 프로그램(EPADP) 또한 완성되었고 이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현대화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
- 중앙아프리카에서 가봉, 콩고는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 따라 EU와 무역을 하는데 반해, 카메룬은 EPA에 합류하였음.
- 서비스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유화를 비롯한 문제에 준비가 되지 않음. 다양한 아프리카 집단들 사이의 결합은 EPA 협상의 과제로 남아 있음.

WTO와 EPA

- WTO와 EPA 협상 간의 연결고리가 부족함.
 - 초반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하 라운드 성과가 먼저 나오기를 바랐으며, 도하 라운드에 진전이 있을 경우 포괄적인 EPA를 완성해야 한다고 보았음. EPA 속에 WTO concessions가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WTO 도하라운드 합의가 우선적이며 그 이후 EPA를 종결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임.
- 아프리카 국가들은 EU가 갖고 있는 농업에 관한 합의의 특별 안전장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WTO 협상에서 합의될 경우 EPA 내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특별 안전장치 매커니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EPA와 지역 통합

- EPA 협상은 아프리카 지역 통합 우선순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지역적 접근을 통해 EPA는 무역 촉진, 투자 법규, 규정 등의 지역 프로토콜을 야심차게 이행할 수 있는 도약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음.

‘무역을 위한 원조(AfT) 이니셔티브’의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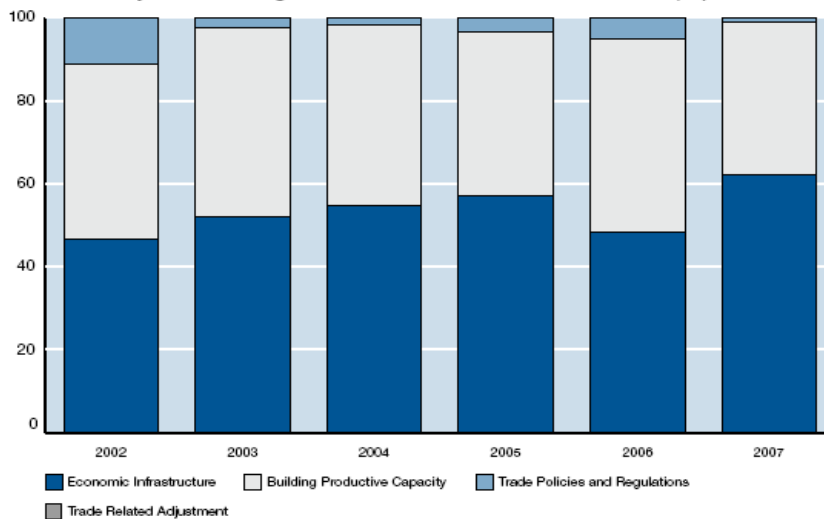
- 아프리카의 무역 구조는 여전히 생산과 수출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내수 무역이 낮은 바, 이는 빈약한 인프라와 무역 촉진의 비효율성에 따른 높은 무역 비용 발생 때문임.
-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항구와 세관 시설을 현대화하고, 제도 강화를 통해 이러한 높은 무역 비용을 해결함으로써 아프리카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아프리카의 무역을 위한 원조 약정액의 양(quantum)

-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 재원은 2002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음.

Figure 3.4

Allocation by broad categories of AfT commitments to Africa (%)



Source: OECD online database, 2009.

- 아프리카 경제 인프라를 위한 비용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 자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서 생산 역량 육성이 36%. 생산 능력 육성을 위한 자원 배분은 낮은 다양성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09~2011년의 ‘무역을 위한 원조’의 집중 모니터링 분야

-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의 최대 활용 방안에 관한 이슈들이

제기된 것을 바탕으로 WTO 회원들은 2009~2011의 집중 분야를 선정하였음. 아프리카 국가들은 WTO 무역개발위원회가 실행한 모니터링을 위해 집중 분야 선정에 참여해왔음.

- WTO 선진국들의 AfT 약정액 이행 및 추가적인 약정에 대한 권고,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 경제 계획 통과 협의에서 무역이 주류화 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AfT 이니셔티브의 주인의식 제고, 지역 개발은행 및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민간부분과의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의 AfT 협상지지 등을 집중분야로 선정함.

3.2 지구적 금융 및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개발 자원

- 2002년 3월 개발 자원에 관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틀에서 정의된 6가지 중요 분야(국내 개발 자원, 국제 개발 자원, 국제 무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금융 및 기술협력, 외채, 시스템문제)를 바탕으로 지구적 금융 경제 위기의 결과를 정리함.

국내 자원 동원

-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외부 자원보다는 국내 자원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
-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국내 자원 동원에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국내 자원을 통한 투자가 미흡하고 지구적 금융·경제 위기 결과에 따른 자원 격차가 큰 실정임.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국내 저축의 총합은 2008년 GDP 25%에서 2009년 19.3%로 하락하였음. 북아프리카는 높은 소득과 오일 및 가스 수익으로 인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저축 비율이 높음. 2009년 아프리카의 전체적 정부 수익은 수축하였음. 이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금 및 관세 행정 개선, 회계 거버넌스 및 외채 개선, 민간 저축 동원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자원 동원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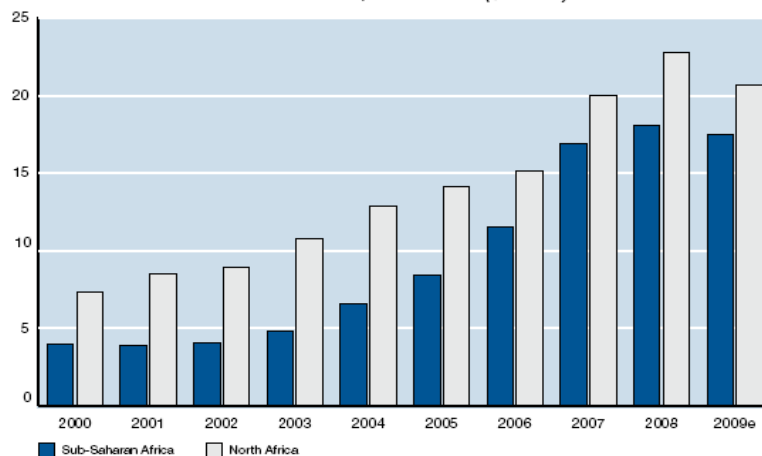
민간 자본의 흐름

- 2008년 아프리카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876억 달러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67%까지 떨어졌음(UNCTAD, 2009). 또한 대부분의 FDI 흐름은 광물자원,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되었음(알제리, 앙골라, 이집트, 적도 기니,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튀니지).
- 아프리카 FDI 흐름의 전망은 경제 발전 및 세계 상품가격 회복에 의존됨. 아프리카 주식 시장의 역개발의 결과로, 보츠와나, 이집트, 케냐,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잠비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였음.

노동자 송금

노동자의 송금은 아프리카 개발 재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Figure 3.5
Workers' remittances flow to Africa, 2000-2009 (\$billion)



Source: World Bank, 2009a.

Note: Data for 2009 are based on estimates.

- 송금은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가계 소비의 재원으로 대부분 사용됨.
- 2008년 송금이 GDP의 5% 이상을 차지한 국가들 : 레소토(27.3%), 토고(10.1%), 세네갈(9.8%), 카보베르데(9.0%), 감비아(8.2%), 모로코(8%), 시에라리온(7.7%), 라이베리아(7%), 기니비사우(7%), 수단(5%).

-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노동자 송금은 선진국의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2009년 7% 하락하였음. 아프리카 국가 중 송금 수혜가 가장 많은 6개국은 2009년 95%의 하락을 보였음.

무역

- 지구 경제의 침체는 아프리카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수요를 감소시켰고, 아프리카의 상품가격 및 수출 수익의 급하락을 야기함. 상품가격 및 수출량의 하락은 2008년 하반기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수익의 엄청난 감소를 가져옴. 지구적인 무역 감소는 국내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세의 하락 등 국내 재원 동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위해 상품 및 파트너 국가를 다양화하고 특히 아프리카 내 무역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공적개발원조(ODA)

Table 3.1

Total net ODA flows to Africa, 2000-08 (billions of current \$US)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et ODA disbursements	15.6	16.8	21.8	27.3	29.7	35.5	43.5	39.1	44.0
ODA Total, excl. Debt	14.5	15.3	18.6	20.5	25.3	26.6	28.3	35.4	42.0

Source: OECD online database, 2009.

- 2004~2008년 양자원조 총액의 68%가 아프리카로 이행되었고, 같은 기간 상위 5개 공여국의 총원조액의 44%가 아프리카에 투입됨.
- 23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순 ODA 흐름은 2004~2008년 동안 GNI의 10%가 넘고, 10개국(에리트레아, 말라위,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기니 비사우, 시에라리온, 브룬디, 라이베리아)에서는 20%가 넘음. 따라서, 원조의 감소는 이 국가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구적 경제 위기의 영향을 완화해주는 다자기구의 대출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여국의 경제 침체에 따라 경기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원조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2009년 아프리카 ODA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DAC 공여국들의 2009년 대 아프리카 ODA는 감소하였음. non-DAC 공여국들의 개발 원조를 통한 아프리카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아프리카 지원은 특히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짐. 2007년 중국은 아프리카 경제 취약국들에 대해 60억 달러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고채무빈곤국(HIPCs)과 최빈국에 대한 외채 탕감을 포함함.

외채 및 외채 탕감

- 많은 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채탕감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와 다자기구 부채탕감 이니셔티브(MDRI)를 통해 2009년 7월 현재 총 974억 달러의 혜택을 받았음. 그러나 부채탕감에도 불구하고, 2009년 아프리카 지역의 총 외채는 GDP의 25.4%까지 증가하였음.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GDP 대비 총 부채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01년 각각 68.4%와 203.6%에서 2008년 24.5%와 91.9%, 그리고 2009년 27.9%와 919.%로 감소하였음. 2009년 외채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은 GDP의 낮은 성장과 수출 감소라고 할 수 있음.
- 부채탕감 이니셔티브와 MDRI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고 거버넌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기본적인 경제 사회 서비스 이행을 제고하는 것이 요원한 상태임.
- HIPC Programme에 채권국들의 참여 증대가 필요함. 그러나 부채탕감만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탕감을 완결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 관리 정책은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취약성을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함. 특히, 아프리카의 무역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시스템 문제

-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의 장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Financial Stability Forum에 참여와 IMF 및 세계은행 위원회, G20에서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기를 바라고 있음.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미친 지구적 금융경제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려는 수단과 이니셔티브의 움직임이 있음. 이를 통해 개발을 위한 재원의 이용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음.

3.3 아프리카 기후변화 : 코펜하겐 결과 및 합의

- 과학자들은 온난화가스 배출이 전체 4% 미만인 아프리카는 적도와 근접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기온상승, 강수량 양상의 변화, 해수면 상승, 기후변동 증가 등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함.
- 기후변화의 영향은 경제·사회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이는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고용, 소득, 빈곤 감소에의 영향으로 이어짐(UNEP, 2008). 그러나, 기후변화는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깨끗한 개발, 녹색,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3.1 기후변화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친 영향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농업, 어업, 임업, 그 밖의 천연자원 및 관광업과 같이 기후에 민감한 분야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특히, 아프리카 총 수출의 50%, GDP의 21%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농업은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됨.

- 기후변화로 인해 아프리카 생물다양성 악화와 2020년까지 2억5천만 명의 아프리카 인구가 물 부족(water stress)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됨.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매우 건조한(semi-arid) 환경에 처해 있음.
- 농업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며,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는 홍수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감(IPCC, 2007).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가에 거주하는 많은 아프리카 인구의 건강 뿐 아니라 인프라, 어업, 생물다양성, 관광 산업을 위협할 것으로 보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포트사이드 사이의 해안 지역에서 50cm의 해수면 상승할 경우, 150만명 이상 인구의 거주지와 214,000개의 직업을 앗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3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의미함(UN-HABITAT, 2008).
 -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리아로 인한 건강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9천만명이 말라리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세계은행, 2009).
- 기후변화는 인간 개발을 해칠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간 안보의 지대한 위협 요인이 될 것임.
 - 기후변화로 인한 대거 이주는 땅, 물, 연료와 같은 주요 자원의 통제권과 접근권에 대한 폭력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 최근 한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잘 계획된 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20년 동안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민 분쟁의 가능성은 5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함.

3.3.2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비용

- 온난화의 정도에 따라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적응 비용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5~10%까지 이를 수 있음(IPCC, 2007).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후변화 적응 비용은 증가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낮은 GDP 성장으로 인해 GDP 대비 기후 변화 적응 비용이 가장 높음.
- 인프라, 해안지역, 물 공급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적응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임(세계은행, 2009).
 - 세계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물 공급과 홍수 관리에 들어가는 적응 비용이 가장 큰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임. 2010~2050년 동안 인프라에 들어갈 비용은 11~60억 달러 정도로 예측됨.
- 개발도상국의 보건분야에 들어가는 적응 비용은 40~120억 달러 사이로 예상됨(UNFCCC, 2007).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 등의 예방 비용에 해당됨.
- 완화 역시 적응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함께 진행 되어야 함. 이는 아무리 적응에 힘을 기울여도 가스 배출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효용이 없기 때문임.
 - 아프리카에서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비용 예측에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나, 현재로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예측 비용은 1000~2000억 달러 정도임.

3.3.3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재원

- 자금의 출처에 따라 재편성할 수 있고 적응과 완화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후 관련 자금 이니셔티브들이 확산되고 있음.
 - 국제적 공공기여의 방식, UNFCCC/교토의정서의 인가로 조직된 자금을 이용한 거버넌스 방식, 직접적인 양자 기구 재원 또는 non-Convention Funding initiatives로 알려진 세계은행과 여타 다자기구가 관리하는 방식의 이니셔티브들이 있음(APF, 2009).
- 그러나, 모든 공공 자금은 자발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재원의 흐름을 충분하게 끌어올리지 못함. 전체적으로 약속한 금액은 15% 미만만 지출되었음. 아프리카는 지난 4년 간 실제로 지출된 금액 중 12% 미만을 받았음.

-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 하에 만들어지고, 특정 집단의 탄소배출 감소 약정의 이행을 돕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화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음.
- 2007년까지 CDM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 배출권의 판매 성과는 74억 달러에 이룸. 그러나 1186개의 CDM 프로젝트 중 17개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그 중 14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음 (IISD, 2008, IFPRI 2008).
- 기후변화에 필요한 금액과 사용가능한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큼.
- UNFCCC 내 집단들은 탄소 시장, 탄소 또는 국제적인 여행 관련 세금, 공공기금을 통한 재원 확장 등 많은 제안을 제시함.
- 코펜하겐 협정은 2010~2012년 동안 300억 달러,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드는 개발도상국에 의한 적응 및 완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는 집합적인 약속을 기록함.

3.3.4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녹색 성장과 고용의 기회

- 녹색 성장과 깨끗한 개발은 환경과 경제개발 모두에 득을 가져올 수 있음. decent work와 고용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회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음.
- 녹색 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정책 및 연구에서 통용되기 시작함. 녹색 일자리는 산업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와 원료의 소비를 줄이는 등 모든 형태의 낭비와 오염을 최소화시킴.
- 국제노동기구(ILO,2008)에 따르면, 탄소 배출에 값이 부과되고 그 수익이 노동에 대한 세금을 내리는데 사용된다면 고용은 2014년까지 고용은 0.5%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는 1,4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함.

- 개발 정책과 실행에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조치가 통합되어야 함. 아프리카 녹색 성장의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에너지, 삼림 농업 (forestry agriculture)과 물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적응정책(NAPA)의 개발 및 실행과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NAMA)는 녹색 성장의 기회를 나타냄.

3.3.5 코펜하겐 결과와 시사점

- UN 기후변화 컨퍼런스가 2009년 12월 7~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으며, 코펜하겐 협정이 체결됨. 이 협정의 주요 약속은 기후변화 재원과 탄소 배출 감소 조항과 행동에 관한 것임.
-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펜하겐 컨퍼런스를 이끌어낸 기후변화 관련 모든 국제적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였음. 향후 Common African Negotiating Position on Climate Change와 공동의 협상전략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함.
- AUC, ECA, AfDB, 그리고 정치 최상위의 지지를 받은 Climate for Development Programme in Africa (Clim-Dev-Africa)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정치적 리더십은 AUC에서 제공받았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지구적인 협상과 지역 정책적 대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기후변화와 사막화 프로그램 조정 단위(Unit)는 설립과정에 있음.
- ECA를 기반으로 하는 아프리카 기후 정책 센터(ACPC)는 위원회의 지식관리, 정책, 프로젝트 활성화 기구임. AfDB를 기반으로 하는 ClimDev-Africa 특별기금(CDS)은 아프리카 전지역에서 기관을 운영하며 현장의 요구에 맞는 기금 마련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

- ClimDev 아프리카와 그 독립체들은 아프리카가 2010년 합법적으로 합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렇듯, 아프리카 지역 조직들은 기후변화 협상, 완화 및 적응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3.4 결론 및 정책 제언

- 아프리카의 성장을 이루고 무역, 개발 자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실업과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강조함.

2009년 국제 무역 및 무역협상에서의 개발

- 세계무역에서 아프리카의 비중은 여전히 주변적이고 무역 품목은 다양하지 못함. 아프리카 무역의 경기순응적인 성격으로 인해 외부적인 경제 충격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보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프리카 역내 무역은 10% 미만의 수준으로 침체되어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양화 추구하고 인프라 제약 문제를 해결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 역량 강화에 계속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는 아프리카 국제 무역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WTO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이며, 아프리카 주변화 방지의 노력 또한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임.
- 아프리카 국가들이 농업과 NAMA 뿐 아니라 다른 협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아프리카 협상자들은 WTO와 EPA의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일관성을 위해 WTO 협상의 결과물들이 EPA 합의에 반영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함.
- 무엇보다 아프리카 전체적인 협상의 입장에 대한 조정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아프리카 무역 장관이 승인한 EPA Template은 이러한 조화를 위한 좋은 기반을 제공함.

개발 자원

- 지구적 금융경제 위기로 인해 아프리카는 직접적으로는 금융 부문에 타격을 받았고, 간접적으로는 무역량, 노동자 송금, 외국인 직접투자, ODA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음. 또한 아프리카 국내 자원 동원이나 외채 부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
- 지구적 금융경제 위기가 아프리카에 준 영향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국 개발 자원에서의 지나친 의존을 최소화하고 국내 자원 동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 아프리카 내 무역과 지역 통합을 강화하고, ODA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남남협력을 강화, 선진국 경제의 충격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함.

기후변화

- 국제사회 기후변화 협상에서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며 2012년 이후 국제사회 기후변화 체제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함.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돕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회로 인식해야 함. 아프리카 지역 내 기관들은 기후변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함.
- 통합은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에 현존하는 제도적 구조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조정 매커니즘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임. 정부와 섹터 간에 조화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체제가 제공하는 녹색 성장과 녹색 일자리의 기회의 혜택을 받아야 함. 개발과 NAPA와 NAMA의 이행은 그러한 기회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할 수 있음. 금융,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개발은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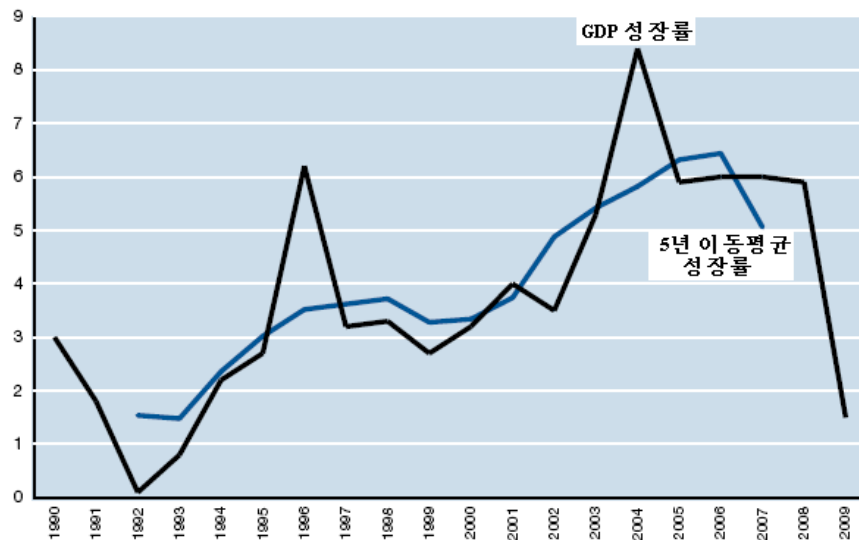
- 아프리카가 계속해서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2010년 협상에 입장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코펜하겐의 교훈을 통해 조화와 협상 구조를 강화해야 함. 또한 지역경제공동체(REC)의 역할과 다른 지역 집단을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는 기후변화 재원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야 하고, 코펜하겐 협약의 원칙 안에서 작동하는 Community of Practice(CoP) 하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립해야 함.
 -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어, 지구환경기금(GEF) 하의 Resource Allocation Framework 같은 공공기금 사용 활용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함. 이러한 새로운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기 때문임. 이런 맥락에서 국가들은 그러한 기금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관리측면의 능력을 길러야 함.
- 아프리카가 세계 탄소 시장에 잘 통합되기 위해 CDM 규정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음.
- 아프리카 협상자들이 아프리카 문제와 관심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ClimDev-Africa와 그 집합체가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되어야 함. 더 나아가 ClimDev와 그 집합체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정책 개발과 이행에 통합될 수 있도록 특히,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지해야 함.

제4장.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개요

-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4~2007년 기간 동안 아프리카 대륙전체 평균 GDP 성장률 6.1%를 기록하여 1992년의 0%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이룸(<그림 4.1>).

<그림 4.1> 연간 및 5년 이동 평균 GDP 성장률 (단위: %)



출처: UN-DESA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ECA 통계 (2009).

- 그렇지만 이 경제 성장률은 MDG의 경제 성장률 7% 목표에 미치지 못하며, 두 자리의 숫자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불완전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음. 높은 실업률은 생산능력의 불완전한 활용을 보여주며 경제발전속도 저하,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와 직결되고, 기술 퇴화, 빈곤 및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짐. 또한, 높은 실업률은 사회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
- 최근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속도를 저하시키고, 실업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음.

-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특히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정, 통화, 환율정책에 있어 확장정책을 도입하여, 금융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야 함.
- 또한, 장기적으로는 높은 고용률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아프리카 경제 및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

4.1 경제발전의 원동력

4.1.1. 경제발전의 결정 요인

- 현대의 성장관련 이론에서는 요소 축적(factor accumulation)과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성장을 경제성장의 두 가지 근원으로 꼽고 있음.
- 요소 축적률은 그 경제의 저축률에 비례. 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이 평균 약 35%의 GDP를 저축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젊은 층이 장기간 교육을 받는 반면,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우 GDP의 20%이하를 저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젊은 세대가 교육을 받고 있음.
- 총 요소 생산성은 창의적인 생각과 발전된 업무처리 방식으로부터 비롯되며, 요소 축적의 양과 질 뿐만 아니라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환경 및 기관 마련이 중요. 이에선 인프라 및 관련기관 구축, 시제간(inter-temporal), 부문간(inter-sectoral) 자원배분을 위한 시장마련, 경제 및 사회안정 등이 필요.
- 성장을 위해서는 요소 축적뿐만 아니라 축적된 요소들의 효율적인 활용도 필요하므로, 요소 축적과 총 요소 생산성은 함께 고려되어야 함.

4.1.2.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

-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에는 성장회계분석(growth accounting), 성장회귀분석(growth regression), 성장진단분석(growth diagnostics)의 세 가지 방법이 있음.

- 성장회계분석은 각각의 생산요소와 총 요소 생산성이 각 기간별 경제성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줌.
- 성장회계분석을 활용한 몇몇 연구진들은 아프리카의 경우, 요소 축적만이 성장에 기여하며 총 요소 생산성 성장률은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 (<표 4.1>).
 - 하지만 성장회계분석은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선 관련 요소 분리 해석에 대한 문제, 관련 데이터의 측정오류, 측정 결과 해석의 어려움 등이 내포됨.

<표 4.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성장회계분석(growth accounting), 1960-2002

국가	실질 GDP 성 장률 (%)	기여요소			국가	실질 GDP 성 장률 (%)	기여요소		
		자원	노동	TFP*			자원	노동	TFP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3.2	1.8	1.5	0.0	레소토	3.4	2.5	1.1	-0.1
앙골라	2.3	2.1	1.6	-1.4	라이베리아	1.9	0.5	1.5	-0.1
베닌	3.3	1.3	1.2	0.7	마다가스카르	1.2	0.8	1.6	-1.2
보츠와나	7.5	3.8	1.7	2.0	말라위	3.5	2.1	1.4	0.0
부르키나 파소	2.7	1.5	1.0	0.1	말리	2.9	1.3	1.2	0.4
브룬디	2.7	1.7	1.2	-0.2	모리셔스	5.3	2.5	1.6	1.2
카메룬	3.8	1.9	1.3	0.6	모잠비크	3.6	2.3	1.0	0.3
카보베르데	5.5	3.0	2.1	0.4	나미비아	1.9	1.5	1.5	-1.1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2	0.9	1.0	0.3	니제르	2.6	1.0	1.7	-0.1
차드	4.1	2.0	1.5	0.6	나이지리아	3.1	1.7	1.6	-0.2
코모로	1.9	1.3	1.6	-0.9	르완다	2.5	1.1	1.8	-0.4
콩고	4.0	2.1	1.6	0.3	상투메프린시페	0.4	2.0	1.5	-3.0
콩고민주공화국	0.2	1.1	1.6	-2.4	세네갈	2.1	1.0	1.5	-0.5
코트디부아르	3.6	1.0	2.4	0.2	세이셸	3.2	2.9	0.8	-0.5
적도 기니	11.6	5.0	2.0	4.6	시에라 리온	-2.6	-0.4	1.2	-3.5
에티오피아	2.8	1.3	1.5	0.0	남아프리카 공화국	3.1	1.5	1.4	0.1
가봉	2.7	1.9	1.1	-0.2	스와질랜드	4.6	1.6	1.6	1.4
감비아	4.9	2.3	1.9	0.7	탄자니아	3.3	1.8	1.8	-0.3
가나	2.6	1.1	1.5	-0.1	토고	3.2	1.6	1.5	0.1
기니	4.0	2.2	1.3	0.5	우간다	5.1	0.7	1.5	2.8
기니비사우	2.9	2.3	1.2	-0.7	잠비아	2.3	1.7	1.6	-1.0
케냐	4.0	2.1	1.9	0.0	짐바브웨	2.6	1.6	1.8	-0.7

*: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총 요소 생산성.

출처: Tahari와 그 외 (2004). 위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 지부티, 에리트레아, 모리타니,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비고: 위의 ‘자원’은 물적자원을 뜻한다. 사용된 자원비중은 0.4(알파의 값)이었으며, 초기 자본-생산 비율은 1.5이었다(자본금에 대한 첫 예상수치제공). 감가상각율은 6%로 가정했다.

□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성장회귀분석은 국가간 자료나 패널 자료 등을 이용하여 주요 성장요인을 도출해내는 방법.

○ 성장회귀분석을 이용한 몇몇 연구의 대부분의 결과, 아프리카의 경우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축적이 소득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2>). 그러나 성장회귀분석 역시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는 역의 인과관계, 생략된 변수관련 편향(bias), 불충분한 인과관계, 측정오류, 한계 대 문턱 효과(marginal versus threshold effects)의 문제, 모델의 불확실성 문제 등이 있음.

<표 4.4> 공동계산적 조건부 회귀분석 (Pooled Conditional Regressions; 1인당 실질GDP 성장 관련)

변수	1		2		3		4	
초기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Real GDP per capita)	-1.363	***	-1.259	***	-1.115	***	-0.740	**
초기 기대수명	0.065	**	0.085	***	0.064	**	0.049	*
부양비율 (Age dependency ratio)	-0.044	***	-0.043	***	-0.046	***	-0.042	***
잠재노동력 참가의 증가	0.655	***	0.965	***	0.924	***	1.009	***
육지로 둘러싸인 위치	-0.469		0.010		0.179		0.662	
무역 상대국 증가	0.551	***	0.378	**	0.304	*	0.416	*
무역조건 개선으로 비롯된 소득효과	0.032		0.036	**	0.043	***	0.049	***
정치적 안정성	-0.292	***	-0.240	***	-0.257	***	-0.212	***
물가상승률 (<500)	-0.010	**	-0.016	**	-0.016	**	-0.015	**
암시장 프리미엄 (<500)	-0.014	***	-0.013	***	-0.012	**	-0.014	***
과대평가 지표 (Overvaluation index)	-		-		-0.007	**	-0.009	**
비생산적인 정부소비/GDP	-0.099	***	-		-		-	
총 정부소비/GDP	-		-0.031	**	-0.024		-0.024	
M2/GDP 비율의 로그 수치	-		-		-		0.173	**
상수	11.575	***	9.014	***	9.908	***	6.601	**

관찰결과	495		676		592		415	
결정계수 (R-squared)	0.356		0.339		0.357		0.357	
F-stat	12.441		13.214		14.012		20.268	
Prob > F	0.000		0.000		0.000		0.000	

출처: Ndulu와 O'Connell (2008).

비고: 1960~2004년 기간에 대한 불균형 패널. '관찰결과' 항목은 5개년 평균에 해당.

*: 10%일 때 유의미함.

**: 5%일 때 유의미함.

***: 1%일 때 유의미함.

- 하우스만(Hausman)을 포함한 몇몇 학자들은(2008) 성장진단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평가 도구들을 통해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성장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을 포함. 이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과 달리 특정국가의 정책에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짐.
- 이러한 접근방법을 이용한 결과,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요소 부족 또는 부족한 생산요소 획득을 위한 필요 자원과 관련하여 제약을 겪고 있음이 밝혀짐(<표 4.3>).
 - 이 접근방식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약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 부족, 잠재가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약 요인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 등이 포함.

<표 4.5> 아프리카의 성장진단분석-낮은 수준의 민간부문 투자의 원인

	국내투자를 통한 사적 수익		국내투자자금 조달비용
	투자를 통한 사회적 수익	수익의 민간 점유성 (private appropriability)에 대한 위험요소	
이집트*	교육투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적 수익으로 보아 기술병목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임	거시경제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해 공용징수 (expropriation)의 위험이 있음	높은 실질대출금리와 자금조달의 접근성 측면에서의 비효율적인 금융 중개기관 때문에 (자본조달의 잠재 가격)이 높음
케냐	에너지와 교통비용이 높아져 낮음. 인적자원의 부족과 R&D에 대한 노력 부족	부패와 범죄로 인해 높음	금리는 비교적 낮으나 자금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특정그룹의 대출자에게는 높은 대출비용 부과(예: 지방소재 사업가, 소규모 사업가)

마다가스카르*	한정된 인프라와 교육 및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낮음	독단적인 정부의사결정과 불안정한 거시경제환경으로 인해 낮은 점유성을 보임	개발이 미흡한 금융부문에 의해 자금조달로의 접근이 제한적임
모로코*	교육투자에 따르는 수익 비교적 낮음	노동경직성, 높은 기업세, 높은 인적자원 고용세, 고정환율제도와 반수출 편향(anti-export bias)로 인해 낮은 수준의 생산적 다양화 문제가 있음. 조정, 정보 및 학습의 외부효과와 관련한 시장실패 문제도 존재함.	국내 자금조달은 제약 요인이 아니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탄자니아*	일정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도로 인프라의 저개발로 인해 낮음	부패로 인해 높음(범죄율은 낮음).	실질저축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내투자자금조달비용의 문제가 있음. 부분적으로 담보조건의 이유 때문에 도시소재의 대규모의 안정된 기업에 한해 신용거래가 가능함.
우간다	낮지 않음. 그러나 기술격차, 높은 에너지 비용(전력)과 육지로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로 인한 기타 간접비용(예: 교통비용)의 문제가 있음	인프라 격차와 관련해 조정에 실패함.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예금금리는 낮음) 높은 국내투자자금조달비용. 소규모 기업은 신용거래가 제한적. 인프라 관련 제약요인이 제거될 경우 금융중개기관이 제약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출처: 개별 케이스 연구로부터 ECA가 취합하여 정리한 내용

*: 세계은행 케이스 연구 사례

□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위의 세 가지 접근방법 모두 요소 축적이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시사.

4.2 1990년 이후 아프리카의 성장 원동력

□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원 및 자본 축적의 증가(주로 물적자원과 노동력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었고, 총 요소 생산성과는 적은 관련성을 보임.

- 요소 축적의 증가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부채탕감, 원조증가,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접근성 개선, 아프리카로의 해외송금액 증가, 거시경제환경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진행에 필요한 정치적 환경의 안정과 적절한 기관 구축 등이 포함.

- 그러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요인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4.2.1. 자원 및 자본 축적

- 1990~2007년 동안의 물적 자원 축적은 아프리카 내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
 - 1990~1999년 기간 동안의 GDP 대비 총 투자의 비율은 평균 19.57%를 기록한 반면, 2000~2007년에는 그 비율이 평균 20.22%로 증가 (WDI, 2008). Foster와 Briceno-Garmendia(2010)는 이 기간 동안의 성장의 50% 정도는 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 덕분이라고 밝힘.
- HIV/AIDS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프리카는 보건분야와 노동분야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둠.
 - ILO는 1990년과 2010년 사이 아프리카에서 연평균 3%의 노동력 성장이 있었으리라 추정 (ILO, LABORSTA, 2009). 이 성장은 두 가지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는 자연인구성장률과 참여비율의 증가(특히 여성 참여비율의 증가)임. 유아사망률 또한 1990~1997년 1000명당 92명에서 2000~2007년 1000명당 87명으로 감소 (WDI, 2008).
-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총 초등교육 입학률의 경우 1990년 75%에서 2007년 97%로 증가.
 - 총 중등교육 입학률 역시 1999년과 2008년 사이에 14%에서 29%로 크게 증가. 반면, 총 고등교육 입학률은 1990~1997년 3%에서 2000~2007년 4%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 (WDI, 2008).
 - 교육의 질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의 평균 학습기간은 위와 같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4.6년에서 6.1년으로 증가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 또한,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마친 노동자의 비율이 각각 18.07%에서 21.62%로, 6.8%에서 7.2%로 위와 같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높아져서, 노동자의 교육수준이 대체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교육의 증가만으로는 아프리카의 교육제도가 경제개발에 적합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약 50%의 중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이 과학, 공학 또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에 비해, 오직 20%의 아프리카 대학생들만이 위와 같은 분야를 공부. 또한, 아프리카의 교육방식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높은 실업률과 생산능력의 불완전한 활용문제 또한 이러한 잘못된 교육방침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축적된 인적자원의 불충분한 활용과 연관성이 있어 보임.

4.2.2. 자원 및 자본 축적을 위한 자금조달

-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국내 저축의 증가, 해외 차관도입, ODA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자금거래를 통해 요소 축적을 위한 자금을 마련.
- 아프리카의 평균 총 국내 저축률은 1990~1999년 GDP의 12.4%에서 2000~2007년 15.55%로 증가. 그러나 저축률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높았으며,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차이를 보임.
-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자원 및 자본 축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ODA와 기타 형태의 자금 거래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차관이었다(그러나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ODA는 주요 인프라를 마련하거나 인적자원에 투자할 때 많이 쓰임. 또한 ODA는 외부자본도입으로 이어지는 외화제공과, 외부충격 완화의 효과를 가져옴. 총 ODA양과 GNI대비 ODA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각각 1999년과 1997년에 최저치를 기록. 그 이후로 위 두 개의 항목은 점차 불안정한 회복세를 보임. ODA의 대부분은 부채탕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채를 상환하는 대신 필요한 요소를 축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유를 가져다 주었음.

- 아프리카로의 해외송금액 또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주요 수입원으로 꼽힘.
- 2008년에는 아프리카로의 해외송금액이 400억불에 달했고 이는 아프리카 지역 전체GDP의 3%에 이르는 액수.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순 송금액(<표 4.4>의 '차이(A-B)' 항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증가율은 2007년에 48%를 기록할 정도로 가장 높음(<표 4.4>).

<표 4.6> 근로자 송금액 (단위: 백만미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로의 송금액 (A)	12,948	15,578	19,509	22,481	26,562	36,853	40,118

출처: 세계 개발 지표 (2009).

- 그 동안 아프리카의 자원 및 자본 축적을 위한 자금은 주로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얻은 수출소득을 통해 조달. 수출소득은 2005~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8.33% 상승하였고, 2007년 말에는 GDP의 36.83%를 차지 (<그림 4.2>).
- 수출 품목은 GDP와 비슷한 구성으로, 제1차 자원 및 자연자원과 관련된 원자재, 단순노동이나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상품이 주를 이룸.

<표 4.7> 아프리카 관련 지표 (1990-2007)

	1990 ~1994	1995 ~1999	2000 ~2004	2005 ~2007
국내생산량(GDP) 성장률	1.30	3.69	4.09	5.57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성장률	-1.34	1.12	1.65	3.19
수출가치의 연평균 성장률	1.53	4.34	14.79	18.33
아프리카 국가 간의 수출 (총 수출 대비, %)	8.10	10.37	9.51	8.99
타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출 (총 수출 대비, %)	0.43	0.8	1.02	1.36

대중국 수출 (총 수출 대비, %)	0.49	1.14	3.80	8.64
대인도 수출 (총 수출 대비, %)	1.21	2.53	2.64	2.90
대브라질 수출 (총 수출 대비, %)	0.87	1.73	2.29	2.95
대선진국 수출 (총 수출 대비, %)	70.79	68.83	68.43	67.86
총 국내 투자 (GDP 대비, %)	19.68	19.57	19.38	20.56
공공부문 투자율	6.76	6.38	6.98	6.94
민간부문 투자율	12.92	13.19	12.40	13.62
개도국 평균 대비(%) 아프리카의 투자율	77.0	78.4	78.8	74.2
총 국내 저축률 (GDP 대비, %)	17.23	17.32	23.5	30.79
상품 및 서비스 수지 균형 (GDP 대비, %)	1.01	-0.05	2.95	7.04
Average level of reserves in months of imports	7.24	9.02	10.92	13.52
초등교육 입학률 (%)	74.6	81.1	88.14	96.55
중등교육 입학률 (%)	29.88	31.45	40.81	34.12
국제 원자재가격 지표 (Global all-commodity price index)	53.62	55.7	65.07	131.94
국제 에너지가격 지표 (Global index of energy prices)	32.83	34.98	55.3	133.84
국제 식량가격 지표 (Global Food Price index)	99.00	98.34	87.08	123.71
연료품목제외 국제 원자재가격 지표 (Global non-fuel commodity price index)	88.67	91.16	81.78	128.72
대출금리 스프레드 (국내)	6.01	6.07	8.03	11.85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국내여신(Domestic credit; GDP 대비, %)	42.33	51.52	50.69	50.84
총 민간자금 (GDP 대비, %)	0.24	0.11	2.32	1.34

출처: 아프리카 개발 지표를 토대로 작성한 ECA 통계 (2009).

4.2.3. 성장과 실업률

-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지난 20여 년 동안의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고용률 성장을 가져오지 못함.
- 노동력의 증가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 제한적으로, 총요소 생산성 성장의 부진 또한 생산능력의 불완전한 활용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 한 나라의 경제에서 고용률의 증가는 일자리의 부문별 구성, 부문별 성장률 그리고 여러 부문에서의 일자리의 생산량 탄력성(the output elasticities of employment)에 영향을 받음.

-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추출 부문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부문은 자본집약적이고,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국내 경제와는 제한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 지난 20여 년 동안 전체 노동인구의 10%이하를 고용하는 광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10%이상 증가한 것에 반해, 총합 80% 이상의 노동인구를 고용하는 농업, 생산업, 서비스업은 연평균 2.5%밖에 성장하지 못함. 그러므로 고용증대대책을 도입할 때에는 총 고용인구의 증가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높은 실업률은 빈곤 구제와 MDG 달성을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고용인구의 증가는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동인력을 모두 고용하려면, 아프리카 내의 경제구조의 전환이 필요. 이는 자연자원추출산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생산업, 서비스업, 농공산업 등의 고용탄력성이 큰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4.2.4. 총 요소 생산성 현황

- 여러 가지 증거들로 미루어 보아 현재까지 총 요소 생산성의 성장은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 미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Tahari와 그 외, 2004, 세계경제포럼, 2009, Ndulu와 그 외, 2008), 이는 열악한 기관현황 및 경제운영능력, 인프라개발의 부족 및 비효율성, 그리고 축적된 자원의 비효과적인 활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체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인프라를 보유.
- Foster와 Briceno-Garmendia(2010)에 의하면 인프라 수준에 있어서 다른 개도국과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간 약 930억불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인프라의 관리 및 개선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 아프리카의 R&D 노력 부족 또한 총 요소 생산성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더불어, 자원의 효과적 활용수준이 낮아 자원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해외직접투자(FDI)는 1990~1999년 GDP의 0.175%에서 2000~2007년 1.83%로 증가. 그러나 2008년 62%의 대아프리카 FDI는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4개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정책 환경과 거시경제의 안정

- 1990년 이후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안정된 거시경제와 정치환경, 개선된 경제운영능력 그리고 정치행정제도임.
 - 많은 국가들이 개선된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재정균형상태와 높지 않은 물가수준을 통해 보여지고 있음. 더불어, 아프리카 나라들은 각종시장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과 개선된 인프라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대범한 구조개혁과 정치개혁 또한 이루어짐.
 - 점차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당 민주주의(multi-party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고, 이전보다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선거제를 도입. 이러한 개혁을 위한 조짐은 아프리카 상호감시 메커니즘(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APRM)이라는 NEPAD하에 생겨난 자발적 자가 모니터링에서도 나타남.

4.3. 최근 금융위기가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끼친 영향

-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는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들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표 4.7>에서 보여주듯이, 금융위기의 여파 정도는 아프리카 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특히 그 영향은 중앙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 그리고 석유 수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표 4.7> GDP 성장률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추정)	2010 (예측)
아프리카	5.9	5.9	6.0	4.9	1.6	4.3
중앙아프리카	5.0	2.6	5.6	4.5	0.9	3.8
동아프리카	7.4	6.8	7.5	6.4	3.9	5.3
북아프리카	6.0	5.9	5.3	4.7	3.5	4.1
남부아프리카	6.0	6.6	6.7	4.6	-1.6	4.1
서아프리카	5.1	5.3	5.9	5.3	2.4	4.7
석유수출국	6.8	6.0	6.9	5.6	2.5	4.9
석유수입국	4.9	5.9	5.1	4.2	0.5	3.6

출처: UN-DESA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ECA 통계 (2009.11.).

4.3.1. 요소 추적

- ☐ IMF와 UN-DESA는 금융위기가 아프리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앞으로 1, 2년 동안 아프리카로의 투자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물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구성은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우리는 아프리카로의 투자가 금융위기 이전에도 다른 개도국과 비교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해야 함.
- ☐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투자자들이 장기간 지속되는 금융위기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자에 대한 자금 충당 능력을 저해할까 우려하여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며, 수출소득과 ODA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우려.
- ☐ 정부수익, 수출소득, ODA의 감소는 아프리카 정부의 재정적 여유를 크게 감소시키며 이는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정부지출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4.3.2. 자원 및 자본 축적을 위한 자금 조달

- 세계 경제의 위축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침. 이는 수출품 가격의 폭락과 수출수익의 대폭 감소로 이어짐 (<표 4.9>).
-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들은 자연자원수출이 수출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남.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은 아직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침.

<표 4.9>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단위: GDP 대비, %)

	2005	2006	2007	2008	2009 (추정)	2010 (예측)
아프리카	34.1	36.7	39.7	45.9	33.7	37.0
북아프리카	30.1	35.6	41.2	53.7	37.7	42.4
동아프리카	25.8	26.8	26.5	25.5	21.5	21.4
서아프리카	40.6	38.3	37.6	38.0	31.3	34.5
중앙아프리카	61.4	62.2	65.9	66.8	48.7	52.3
남부아프리카	29.1	31.2	32.8	36.1	27.3	28.3

출처: IMF (2009)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ECA 통계.

원조와 기타 자금 거래

- 원조는 계속해서 아프리카의외부조달자금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감소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공여국들의 재정상황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이후 원조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IMF 역시 공여국들의 원조 지출액이 201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과 소규모 섬나라 국가들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연구진들은 (Pallage와 Robe, 2001) 원조지출액과 경기변동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위기가 원조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금융위기는 원조양의 감소뿐만 아니라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높은 원조 변동성과 원조 지출의 연기, 공여국들이 약속한 원조액을 맞추기 위해 원조 구성을 변화하는 것 등이 원조를 통한 개입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원조의 형태는 아프리카로의 순자원유입(net inflow of resources)이 아닌 부채탕감의 형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것 .
- 아프리카로의 해외송금액 또한 외부자금조달에 있어 점차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금융위기는 이러한 송금액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세계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으로 신용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민간금융시장에 접근하여 요소 축적, 생산,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함.

정부수익, 재정정책 그리고 사회 서비스

- 무역세와 자원이대(resource rents)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있어서 주요 수입원.
- 금융위기는 수출수익과 수입량을 감소시켜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수익에 특히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대책들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재정 적자를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경제침체기에 교육, 보건, 식량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의 두 가지 정책 모두 도입될 것으로 보임.

외적균형

- 금융위기는 아프리카로의 민간자본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08년 이후로 포트폴리오자본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 이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보유고에 압력을 가하며, 환율에 심한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프리카 국

내 사정은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느냐에 달려있음.

- 수출수익과 기타 금융거래의 감소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 및 자본 축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차질을 일으켜, 경제성장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장기 성장에 있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인력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감소.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하고 수입원이 감소하여 빈곤 또한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자원수출국일수록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됨.

4.3.3. 고용과 총 요소 생산성

- 성장률의 감소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은 예전부터 높았던 실업률과 생산능력의 불완전한 활용 문제를 심화시킬 것. 또한, 높은 실업률은 실질소득을 줄이고 범죄율을 높일 것. 더불어, 국민들은 이와 같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점차 고단백, 미량 영양소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 보건수준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임.
- 높은 실업률과 낮은 투자율,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자본-노동비율로 인해 총 요소 생산성 역시 감소할 것.

안정된 거시경제환경과 개선된 운영능력

- 수출소득 및 ODA의 증가와, 투자자금조달을 위한 송금액 유입의 증가와 더불어 안정된 정치적, 거시경제적 환경과 개선된 거시경제 운영능력은 지난 20여 년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버팀목이 되어 왔음.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저소득이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민에게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있으며, 이는 이 나라들의 재정불균형과 사회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4.4 아프리카의 높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 성장을 위한 조건

-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경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므로, 금융위기 대비와 장기성장을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은 국내정책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이에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경제침체를 대비한 단기정책 마련과, 지속 가능하면서도 높은 고용률을 창출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장기정책 수립. 이 정책들은 자원 및 자본 축적을 감소와,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함.
- 거시경제정책들은 거시경제환경의 안정보다 경제성장과 실업률 감소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이러한 정책의 예로는 경제침체를 대비하여 인프라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재정확장정책 국내 자원 동원력 향상을 위한 정책 민간부문에 낮은 실질금리를 제공하는 재정 자극과 공적채무 완화를 포함하는 통화정책 통화안정을 꾀하면서 수출을 도모하는 환율운영정책 그리고 생산적인 고용을 높이기 위한 금융정책 등이 있음.
- 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으로는 개선된 경제행정정책 요소 시장 개혁을 포함한 기관 구축 및 개선 R&D와 기술이전정책 대규모이지만 아직 개발정도가 미미한 부문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그리고 아프리카 내의 무역 활성화와 지역적 통합을 위한 노력 등이 있음.

4.4.1. 단기정책

- Weeks와 Patel에 따르면(2007), 경기조정정책은 3가지의 주된 기능을 수반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경기순환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 장기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것, 국민 간의 소득 차를 줄이는 것을 포함. 현재의 경제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재정확장정책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통한 소득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

공공지출

- 금융위기 이전에는 아프리카 국가들 내에서 대체적으로 GDP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공공투자부문에서 대한 공공지출이 높았음. 그러나 2008년도에 아프리카에서 GDP대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이었던 반면, 아시아에서는 40%이상의 수치를 기록.
-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 현저히 부족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함 (Foster와 Briceno-Garmendia, 2010).
 -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총수요량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며, 그 나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함(McKinley, 2009). 인프라와 인적자원개발은 또한 장기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됨. 낮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현황과 축적된 자원의 불충분한 활용 실정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게 함. 또한 현재 생산능력의 불완전한 활용도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공공지출정책은 물가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더불어, 투자대상 사업들은 고용률 상승과 보다 많은 국민의 소득증가를 위해 되도록이면 노동집약적인 사업이어야 할 것 (예: 도로건설, 관개사업, 교육사업, 보건사업 등).

<표 4.11> 정부지출 (단위: GDP 대비, %)

	2005	2006	2007	2008	2009 (추정)	2010 (예측)
아프리카	25.9	26.0	27.4	28.2	31.0	29.7
북아프리카	30.1	30.8	32.5	33.4	36.4	33.9
동아프리카	24.3	24.3	24.3	24.6	24.9	25.5
서아프리카	18.6	17.9	20.0	18.4	21.7	20.4
중앙아프리카	23.2	24.5	27.1	31.3	33.1	31.0
남부아프리카	26.7	26.3	26.5	27.8	30.8	31.1

출처: IMF(2009)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ECA 통계.

재정수익

-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특히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GDP 대비 낮은 재정수익률을 기록.
- 이는 부분적으로 비효율적인 조세행정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최근 들어 무역개혁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경제위기가 낮은 원자재 가격을 불러온 것과 관련하여 특히 자원이 풍족한 나라들이 재정수익의 감소를 경험(<표 4.12>).

<표 4.12> 정부보조금 or 무상원조 (grants)를 제외한 정부수익 (단위: GDP 대비, %)

	2005	2006	2007	2008	2009 (추정)	2010 (예측)
아프리카	27.6	28.8	28.1	30.1	25.2	26.2
북아프리카	33.7	35.5	34.6	37.8	31.6	31.0
동아프리카	16.5	16.9	17.1	17.1	16.4	16.9
서아프리카	22.1	20.3	17.0	18.6	13.3	17.8
중앙아프리카	29.2	34.8	35.6	39.6	30.0	32.4
남부아프리카	26.3	27.3	27.7	27.0	25.8	25.4
석유수출국	35.2	35.4	33.0	37.0	28.4	31.9

출처: IMF(2009)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ECA 통계.

- 아프리카 국가들은 감소하는 조세수익을 만회하기 위하여 조세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조세대상을 넓혀 비공식 부문 종사자와 독립하여 일하는 전문가들(예: 변호사, 의사, 컨설턴트, 건축가 등)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 국내 재정수익을 늘린다면 원조와 외부자금조달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한 수익변동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재정적자

-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감소와 지출증가에 대한 필요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는 재정적자운영을 할 것이라 예상됨 (<표 4.11, 4.12>).

-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해 재정균형은 융통성있게 운영되어야 함. 또한, 과거에 낮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컸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8개국만이 GDP 대비 5%이상의 재정적자운명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나마 적자운영이 가능해 보임. 그러나 이러한 적자운영정책은 단기적인 운영방침이 되어야 하며, 경기순환흐름에 따라 다시 재정균형에 이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함.

통화, 물가, 환율정책

- 통화정책은 빈곤친화적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빈곤친화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극심한 물가변동을 피하고 국제수지 균형과 실질금리의 안정을 도모하며,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이끌어냄(Saad-Filho, 2007).
- 환율정책의 목적은 국제거래와 외환보유고의 변동을 줄여서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함에 있음.
- 현재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여러 형태의 환율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금융위기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그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
- 실질환율 절상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사례에서 보았듯이, 경제구조를 수정하고,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Corden, 1982; Corden과 Neary, 1984; Gylafason과 그 외, 1999). 또한, 실질환율 절상은 관성 효과(Inertia effects)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점차 줄어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환율의 절하가 생산부문의 회복에 있어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 적절한 환율시장으로의 개입을 통해 국내 통화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4.4.2. 금융부문 개발

-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은행이 금융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아프리카의 은행들은 과잉유동성, 높은 명목 (대출)금리, 그리고 대규모 사업과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UNCTAD, 2009).
- 아프리카의 명목 평균 대출금리는 높은 반면, 실질 대출금리는 훨씬 낮음.
 - 또한, 보다 적절한 금융거래 환경을 위해서는 비용과 상관없이 신용거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의 낮은 실질저축금리는 민간저축을 끌어들이지 못하여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높은 이자율 스프레드 또한 아프리카로의 투자에 관한 위험부담에 대한 우려를 반영.
- 정부는 취약계층 및 전략사업부문의 신용거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집행하여야 함. 예를 들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에 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중앙은행들은 차등 지급준비율 정책을 도입하여 신용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사업부문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
-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 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체계(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위험요소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4.4.3. 장기전략

- 지속적으로 높은 소득과 고용수준을 통한 아프리카의 궁극적인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이 물가안정, 재정 및 외부자금의 균형회복, 생산량과 고용 성장에 그 방향을 두어야 함(Nnadozie, 2009). 높은 고용률을 동반하는 장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소축적과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관 및 구조 개혁이 필요함.

4.4.4. 자원 및 자본 축적

-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소 35%의 GDP대비 투자율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함.
- 특히 중요한 것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임. 아프리카의 인프라는 현재 다른 개도국들의 수준에 39%밖에 미치지 못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효율성을 급격히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10억불을 투자하여야만 다른 개도국과의 수준차이를 없앨 수 있음(Foster와 Briceno-Garmendia, 2010).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부문 참여나 이용자 요금 부담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과 민간투자를 도모하는 낮은 대출금리 및 계약집행관리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는 특히 농업과 농공산업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함. 더불어, 자연자원추출부분이 아닌 농공산업과 서비스 수출업 같은 부문으로 FDI를 유치하려 노력해야 함.
- 인적자원개발 또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구제에 중요.
- 아프리카 국가들은 초등과정 이후의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급속도의 성장과 빈곤 구제 및 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아프리카 학생들의 기초 및 응용과학, 공학, 수학 그리고 다른 기술관련 과목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
- 보건과 관련하여서는 공공보건 위생분야, 영양분야, 환경보건분야의 개선과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제공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함. 또한,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HIV/AIDS와 같은 질병들이 도덕적 이슈가 아닌 공공보건의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함.

4.4.5. 자원 및 자본 축적을 위한 자금 조달

- 자원 및 자본 축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특히 국내 자본동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함.

저축률 증대 방안

- 현재 아프리카는 GDP 대비 20%이하의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다른 개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이 문제는 기술발전을 활용해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혁신적인 사례로 가나의 'E-zwick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은행과 비공식 금융기관에서 저축과 기타 금융상품거래를 지역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또 다른 예로는 케냐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있음.
-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이러한 혁신사례를 토대로 은행서비스를 지방과 비공식 부문까지 확산시키고 더 많은 은행상품들을 도입하여야 할 것. 금융시장의 참여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국내외 저축을 도모하는 효율적인 금융 및 자본시장을 개발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어떠한 연구진들은(예: Bawumia, 2010) 아프리카 지역의 펀드를 설립해 국제적인 자본을 형성하여 자원 및 자본축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
- 민간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많은 양의 재정흑자, 혹은 적은 양의 재정적자를 통하여 공공저축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아프리카에서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은 빈곤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함. 그 대신, 정부수익이 현재 GDP대비 30%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수익을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 또한, 조세기반을 넓힘에 따라 재정수익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생각됨.

개선된 자원관리

- 자원관리의 개선 또한 자원 및 자본의 축적을 위한 효과적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원자재시장의 변동을 대비하여 원자재시장의 호황기에는 수출소득의 저축을 늘리고 불황기에는 저축을 줄여야 할 것.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ODA 양의 변동에 대비하여 공여국들이 그들의 ODA 지불액을 하나의 펀드에 예치하고 수원국이 필요 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고용대책

- 총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고용탄력성 성장률 역시 총 고용인구 수에 영향을 미침.
-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이는 농업, 생산업,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장려하는 생산요소시장의 개혁정책, 기타 고용관련대책들을 도입 및 실행하는 것을 포함.
- 농업, 농가공업, 경공업, 서비스업과 같은 대규모 산업으로의 경제구조전환은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음.
- 다른 고용증대정책으로는 자원을 추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일부 자원가공과정을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 실시하도록 계약을 맺는 것.
- FDI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더불어, 서비스수출측면에서 특히 보건, 교육, 우정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음.
- 아프리카에서의 고용증대정책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비공식 부문에 대한 개입도 있어야 함.
- 비공식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있어서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적절한 지원사업을 제공하며 자본에 대한 접근성(특히 신용거래)을 높여주어야 함. 또한, 공식부문의 시장 및 기관과 비공식 부문 간의 상호협력을 높여야 함.
-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수출시장 확대 및 다양화가 필수적. 더불어, WTO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하라운드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시장참여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임.

4.4.6. 총 요소 생산성 증대 방안

-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R&D 증대, 자원추출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의 FDI 유치를 통한 기술이전, 그리고 혁신적인 방안도출을 도모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는 정부기관으로의 개혁 등이 있을 것.
-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 정치안정 그리고 기관개혁(특히 자원시장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기관개혁)은 총 요소 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 재정, 통화, 신용정책을 통한 경제구조전환은 부진한 산업부문에서 고생산성의 활성화된 산업부문으로 생산을 이동시켜, 총 요소 생산성 증대를 불러올 것임.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과 경제운영

- 아프리카의 경제운영능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 국가의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임.
-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할지라도 재정적자와 공적 채무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 통화정책 역시 빠른 성장과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하지만, 과잉확장정책으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됨.

4.5 결론

-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1980년대의 침체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
- 2007년도에는 아프리카 전체 국가가 평균 6.1%의 GDP 성장률을 기록. 이러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은 노동공급의 증가,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증가된 수출소득으로 조달된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의 축적, 그리고 원조유입 및 송금액의 증가로부터 비롯.
-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자연자원추출부문에서의 FDI 유치, 안정되고 개선된 거시경제환경, 향상된 경제운영능력, 정치적 안정도 이러한 경제성장에 이바지.

-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경제구조의 전환과 일자리의 창출을 동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두 자리 숫자의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음.
- 이와 같이 낮은 고용률을 수반하는 성장률은 아프리카가 2015년까지 MDG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그 수혜의 정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
-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는 원자재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를 감소시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낳음. 또한, 금융위기는 FDI의 흐름을 저해하고 ODA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으며, 해외송금액의 유입을 감소시킴. 이는 저축과 정부지출, 요소 축적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소득증가율과 사회복지지출을 감소시키고,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불러오며, 아프리카의 장기 경제전망에 악영향을 끼침.
-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한 아프리카 경제개발의 어려움은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 이러한 정책들은 빈곤구제 및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됨.
-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경기조정의 재정, 통화, 환율에 있어서 확장정책을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양과 질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음.
- 물적자원 중에서는 특히 인프라 구축과 경기변동을 대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
-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인적 및 물적자원 축적에 충분한 노력을 가하되, 경제구조의 전환, 기관개혁, 경제운영능력의 개선,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 성장에도 힘써야 함.

-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의 성장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으므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충분한 양의 국내자원을 생산해 내는 것이 필수적임.

제5장. 성장-고용-빈곤퇴치의 연계 : 회복과 MDG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 아프리카는 다른 개발도상지역보다 빈곤률이 훨씬 더 높고,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의 정도는 더 심각함. 금세기 들어 주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절반이 하루에 1.25 달러 문턱에서 생계를 연명하고 있으며, 이는 1980년대만큼이나 높음. 농촌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빈곤퇴치를 위해 아프리카의 고용 없는 성장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회복, 장기 성장 및 개발전략에 일자리 창출 전략이 주류화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임.
- 빈곤층은 토지, 자산 및 인적자원과 같은 자원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의 행태를 보임. 한편, 교육수준이 낮고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않으며,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일하면서 고용 불안정과 실업의 위기에 도 취약함. 아울러, 정책 및 제도에의 접근성의 제약까지 가미하여 품위있는 일자리(decent work) 일을 수행할 역량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됨. 이에 유엔 ECA는 아프리카에서 경제성장, 고용, 빈곤퇴치의 연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 중심의 성장을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그 다음으로 성장 프로세스에 빈곤층을 통합하여 인간다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고용을 통한 빈곤퇴치 전략은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측면을 조정하고 고용 중심적 성장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조율할 필요 등 신중한 조치가 요구됨.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빈곤층은 신규 일자리 기회를 취할 만큼의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임. 정부는 민간부문 주도의 노동 집약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빈곤층이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함.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현지의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선까지 급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함. 이것은 정보가 다수 아프리카 국가에서 “실업”은 경제적 분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대다수가 고용의 형태로 일을 하지 않고, 또 취업을 지속하게 하는 공식 국가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급여 체계의 고용의 비중이 작더라도 인간다운 직업을 확대하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5.1 아프리카 실업현황 및 성격

- 고용은 경제성장이 빈곤퇴치와 연계되는 핵심 채널로서 세계 각국 정상은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 제정시 고용을 주요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채택함. 2007년 파리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MDG 달성을 위해 고용, 보건 및 다른 빈곤 결정 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였고, 같은 해 43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MDG 목표를 포함하는 PRSP를 채택하면서 빈곤 탈출을 위한 일환으로 품위 있는 일자리(decent work)를 강조함. 그러나 수많은 국제사회 선언과 정부 공약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고용 현황은 개선되지 않음.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이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것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고용 구조는 매우 취약함.
- 아프리카의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층임. 여성 노동인구는 무보수 농업, 식품 가공, 노점상, 저가 국경 무역, 가공된 농산물 판매, 가사노동 등에 집중된 비공식 부문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만, 여성 비중이 여전히 적지만 증가하고 있는 공식 경제의 부문은 교사직, 간호사, 광업, 제조업과 하위행정직임. 여성의 실업문제는 문화적 편견, 남성과 여성의 교육수준 차이, 상공기술 부족 등 다양한 연유에서 기인됨.
- 또한, 청년 인구 층의 증가는 청년 인구의 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15~24세 사이의 청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경력,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임. 한편, 고용된 사람들이 품위 있는 일자리를 제공받는 것 또한 중요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피고용인 70% 이상이 취약한 고용 상황(무보수 가사노동, 자영업자 등)에 처해 있음.

5.2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 아프리카의 성장은 그간 노동집약적이라기보다 주로 자본집약적인 요소에 의거하고 있어 빠른 인구 증가와 노동 시장의 불완전성과 결합한 편협한 경제 성장(narrow-based economic growth)은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이 충분한 고용 창출과 빈곤퇴치에 필요한 성장률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됨.
- 2005년 아프리카의 성장은 부분적으로 높은 물가로 인해 생산량 증가, 생산자 수입 확대, 정부 세수 증대 및 원조 확대와 송금액 증가로 인한 유입 자금 증가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 환경이 개선됨에 기인함. 그러나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며 높은 실업률이 계속 되고 있음. 고용인구의 대부분이 비공식 부문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비공식 부문에서의 고용 상승효과(multiplier effect)는 공식 부문보다 훨씬 더 낮음.
- 아프리카의 빠른 인구 증가와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노동 인력의 공급이 시장 수요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음. 아프리카의 평균 성장률이 빈곤을 퇴치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할 성장률 수치라고 널리 여겨지는 7.0%에 계속해서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느린 고용 창출 속도의 확실한 주요 원인이 됨.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로서, 성장이 저변이 좁고 상품 가격과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경제 개혁의 결여에 따라 휘발적인(volatile)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현, 양적 및 질적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상품가격과 제조업 분야 대신 서비스업계에 대한 투자와 노동수요 증가, 비공식 부문에서의 고용 급증과 공식 급여 고용 체계의 수축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공급 측면의 정책은 민간부문 발전과 현대적 농업기술 뿐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고부가가치의 제조업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진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 또한,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층의 교육수준과 기술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직업 훈련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5.3 보수노동과 품위 있는 일자리

- 품위 있는 일자리는 빈곤퇴치를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 전략의 중심에 자리잡아야하고, 실제 집행으로도 성공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2009년 현재, 53개 아프리카 국가 중 34개 국가가 PRSP를 수립한 반면, 2004년 기준으로 단지 21개 국가만이 고용에 관련된 17개의 핵심 섹션을 갖추고 있음. 개발 프로그램에서의 고용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투명성과 책무성뿐 아니라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아울러, 고용 관련 데이터 수집 방안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함.

5.4 금융 및 경제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과거 위기의 경험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 지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음. 특히 아프리카의 채광 산업은 금번 경제 위기에서 큰 타격을 받음. 시장에서는 특정 산업이 발전하고, 다른 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고용이 창출되는 분야가 이전되나, 아프리카의 경우, 다른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광산업이 쇠퇴하면서 순고용 감소 현상이 일어남.
- 경제위기는 여성, 청년층, 노인층, 장애인층에 더욱 큰 타격을 줌. 특히, 청년층의 실업은 사회 치안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중요함. 또한, 노인과 장애인은 직업 안정성이 낮은 계층으로서 위기 상황에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함.

5.5 실업 감소와 MDG 달성을 위한 신 성장 프레임워크

- 아프리카 국가들이 작금의 경제위기와 같이 고용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외부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정부 정책도 중대한 역할을 함. 신속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빈곤 퇴치는 선결조건이 됨. 동 맥락에서 현 경제위기에서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농업 부문 외적에서 고용 중심의 경제부문을 재구축하는 것임. 이는 경기조정형(countercyclical)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중기 보완책이 될 것임.

5.5.1 장기 고용 전략을 위한 주요 요소

- 정부의 책무성 및 실행의지 확립.
 -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용 창출 계획을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건전한 고용 전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보다 완전하고 시의 적절한 고용 데이터가 필요함.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은 일관되고 조정된 성장 및 고용 전략이 결여되어 있고, 국가개발전략에 명시된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의지도 약함.
 - 고용 전략은 품위 있는 일자리(decent work)를 확대하여 빈곤퇴치 및 근로 빈곤층의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함. 이를 위해 높은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도입함으로써 노동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세한 거시경제 및 섹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고용에 초점을 맞춘 성장 프레임워크는 도농지역 둘 다 공공 투자 재원을 생산성이 높은 섹터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과 프로젝트에 배분함. 이로써 보다 포괄적인 성장과 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함. 빈곤층이 성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는 빈곤층의 자본 및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 및 기술 수준을 향상해야 하며, 전통적 취약그룹인 여성과 청년들에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기회와 소득의 형평적인 배분을 추구해야함.
 - 즉, 아프리카의 공공 부문은 경제 다변화와 고용 중심의 개발을 위한 중기 전략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야하며, 현 세대에는 지속가능한 환경, 빈곤퇴치와 고용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재수립되어야 함.

□ 고용확대를 위한 산업정책 수립.

- 아울러, 중기 고용 전략은 민간 부문 투자와 개발을 진작하고 특별히 제조업 분야의 산업 다변화를 육성하는 산업 정책을 발전시켜야 함. 또한, 유연적인 공공 고용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경기조정형(countercyclical) 금융 정책을 포함해야 함.
- 아프리카의 산업 다변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산업정책은 몇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첫째, 기업가정신을 도모하고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둘째, 정보 불균형과 조정 과정에서 외부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산적인 다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셋째, 공공과 민간 부문이 병목현상과 문제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수월하게 지속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넷째, 지역적으로 통합된 가치 사슬과 시장을 통합하여 산업적 경쟁과 지역 경제 변모 뿐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작, 다섯째, 무역협상과 경제적 파트너십 체결 협약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정책과 개혁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것, 여섯째, 고위급 관료의 정치적 지원, 조정 및 심의 위원회, 투명성과 책무성 메카니즘, 기획 원칙의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구축 등이 핵심 요소임.

□ 산업정책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참여.

- 잠재적 폐기물의 감소와 고용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산업화를 위해 정부, 기업, 노동단체, 시민사회 등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및 다른 개발전략의 수립, 이행과 모니터링에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목표가 설정된 정부의 관여를 통해 산업정책이 유효하게 실행되는 몇 가지 좋은 예로서 모리셔스와 보츠와나의 경험을 들 수 있음. 모리셔스는 교육과 기술교육 개발, 신용 및 수출 진흥, 기술이전 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다른 경제부문에 거대한 투자를 진작하였고, 2008년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GDP의 7퍼센트 이하로 줄임. 보츠와나는 산업발전이 주요 국가 정책 우선 순위로 설정한 국가로서 NGO 뿐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는 수많은 자금이 기업 발전에 활용되고 있음.

5.5.2 경기조정형(countercyclical) 고용 창출

- 생산량, 소득과 고용 부진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 대응 정책은 “단기 현금성 일자리(cash for work)”의 형태로 공공 부문 건축과 보수 프로젝트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지출을 통한 공공 수요를 증진시키는 것임. 지출의 규모는 쇼크 직전의 수준으로 GDP 성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설정될 것이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는 개인 빈곤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됨. 이때 고용의 목표는 빈곤인구의 증가 방지가 됨. 고용 중심의 경기진작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적 확대와 환율 조정 간의 신중한 균형이 요구됨. 정책 패키지는 반드시 기본 경기부양 모델을 구축할 때 활용하는 주요 핵심 매개 변수들의 경험적 예측에 의거해야함.

제6장. 아프리카 선정 국가들의 경험사례

- 6장은 선정된 아프리카 나라들의 성장과 고용 사례를 살펴봄.
- 각 사례 연구는 아프리카의 성장과 고용 성과를 기록,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회와 제약 분석, 국가 수준에서 성장과 고용 결합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제공,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한 교훈과 모범 경영 강조를 목적으로 함.
- 또한 선정된 아프리카 나라들의 성장과 고용에 끼친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 외부 충격에 대한 그들의 취약성 감소 필요를 강조, 특히 취약한 그룹에 이러한 충격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논의.
- 가나(서아프리카), 르완다(동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중앙아프리카), 튀니지(북아프리카) 등 선정된 4개국은 지난 10년 GDP 성장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보이는 동안 성장의 지속성과 변동성 면에서의 변화가 고용과 빈곤에 영향을 주었음.
- 위 나라들의 최근 성취에 관한 몇몇 사실을 요약함.
 - 튀니지는 빈곤과 불평등에서 가장 높은 감소를 달성했고, 그 다음은 가나임.
 - 다른 두 나라는 실제 빈곤 감소가 잠재 빈곤 감소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감소하고 있음.
(잠재 빈곤 감소: 가시적 수입의 증가로부터 기대되는 빈곤 감소율)
- 대부분의 사례 연구가 수입과 빈곤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보제공은 빈약하여 성장과 고용의 관계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정보 제한에도 불구하고 4개국의 사례 연구는 지난 10년간 성장 수행이 개선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튀니지와 비교

하여 훨씬 덜 다양한 생산과 수출을 하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가나에서는 특히 매우 약한 상태로 남아있음.

- 가나에서의 이용이 제한된 정보들은 다른 대륙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여줌. 그러나 데이터의 질이 낮아 확고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며 낮은 빈곤율을 보인 튀니지는 높은 고용을 지속했고 다른 3개 나라에서 보다 훨씬 더 높은 질의 일자리를 가짐.
 - 사실 튀니지는 임금지불고용과 사회 보호를 통해 빈곤을 감소시켜왔고, 비교적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인 좋은 예로서 두드러짐.
 - 튀니지 경제는 농업에 덜 의존적이며 산업과 서비스에 더 의존한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보임.
- 가나, 콩고, 르완다, 튀니지 차례로 고용 전략과 성과, 성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봄. 6.5 섹션은 사례연구의 주요 결과를 다루고 성장과 고용의 결합을 강화하는 국가중심 정책을 추천해 봄.

6.1 가나 : 고용과 빈곤에 긍정적 영향을 준 성장 성과

- 2001~2007년 사이 가나의 GDP는 연율 5.4%로 성장. 일인당 GDP는 매년 3% 성장.
 - 이 성과는 1991~2000년의 GDP 4.3%, 일인당 GDP 1.6%보다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성장의 대부분은 2차, 3차 섹터에 집중. 노동력의 50%이상이 집중된 농업은 2001~2007년 3.8%로 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7.2%, 6.2%와 비교했을 때 훨씬 느리게 성장. 이 성장은 IMF와 세계은행이 지원한 구조조정프로그램에 의하여 1983년에 시행된 개혁의 성과.
 - 일인당 GDP에서의 지속적인 증가는 가나가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MDG 1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 줌. 2006

년 가나의 생활수준 조사(GLSS)에 따르면 매일 1\$로 사는 빈곤 인구가 1992년 51.1%에서 2006년 30%로 감소. 이 성취는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 덕분.

- 가나는 정치적 권리의 인식, 시민 자유, 언론의 자유와 함께 성공적인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룸.
- 1983년 경제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도입은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거시 경제적 환경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됨. 안정화, 투자, 무역정책의 이행은 경제가 불황으로부터 긍정적인 성장으로 가도록 도움. 실제로 1983년 직접적인 국가 관할 생산 능력과 내부 지향 무역 환경에서 국가 개입이 감소된 경제활동,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 시스템으로 가나의 정책 방향에 과감한 변화가 있었음. 개혁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계속적으로 경제에서 지배적이었음.
- 1980~1990년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율이 증가.
-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성장은 광업에 매우 의존적이었음. 제조업과 관광업 같은 노동 집약적 분야는 고용과 성장 성과를 증진시키는 주요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함. 또한 경제 정책은 고용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거시적 경제 안정화에만 집중했음.
- 그러나 2000년 이후로 향상된 성장 성과는 실업률에서의 상당한 감소를 동반했음.
- 고용 상황에서의 개선은 2002~2005년 동안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에서 공공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부문 개발에 크게 주목하여 부분적으로 가나 정부의 가나 성장과 빈곤 감소의 이행에 기여했음. 제 1대, 2대 가나의 성장과 빈곤 감소 전략은 고용 성장과 더불어 확장될 것과 성장의 이익이 더 나은 고용 기회를 통해 폭넓게 분배되고 빈곤 감소를 위한 수입을 향상시킬 것을 확신하며 고용 중심, 다 부문 개발전략에 초점을 맞춤.
- 그러나 가나의 고용 창출 정책은 자금 부족으로 효과적인 이행이 부족했으며, 명확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고용 대상목표가 없었음.

- 전반적으로 가나의 성장은 충격에 취약했음.
 - 최근 경제 위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GDP 성장률이 2008년 6.7%에서 2009년 4.5%로 떨어짐. 게다가 GDP 성장률의 둔화는 적당한 고용을 위한 주요 환경에 해를 입힘. 국가 재정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재정지원을 위해 IMF와 World Bank에 의지.

- 1980년대의 경제 개혁 하에서 긴축재정정책은 사회적 비용으로 접근.
 - 공공부문축소와 민영화 정책은 상당한 수의 인구가 실업상태가 되면서 공공부문에서 비공식 부문으로 고용 변동의 원인이 되는 증가하는 공공 지출 삭감을 실행. 같은 방식으로 농업 부문 보조금 축소가 농부들의 식용 작물에 부정적인 영향 미침.

- 정책 반응에 따라 가나 정부는 1987~1988년에 Programme of Action to Mitigate the Social Cost of Adjustment (PAMSCAD)라고 불리는 사회 보호 프로그램 착수.
 - 5개의 카테고리 안에 2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하여 고용 창출, 공동 계획 프로젝트, 재배치된 자들 도움(help to the redeployed), 취약 그룹 위한 기본적 필요에 대해 교육함.

- 중요한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실행계획과 자금 부족, 인력 부족, 이용 가능한 자금의 지분을 지연시키는 번거로운 회계 절차, PAMSCAD 효과성을 제한하는 공여국과 방법의 다양성임.

- 가나는 국가적 사회 보호 전략을 고안, the Livelihood Empowerment against Poverty(LEAP).
 - LEAP는 가나의 두 번째 성장과 빈곤 감소 전략. 이 전략은 5년간의 실험적인 경험을 가지고 추진. 구성내용은 고아들과 취약 아동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들에게 조건적, 비조건적 현금 전달. 이 프로그램은 극빈곤 상태에 살고 있는 약 160,000 가정에 실행되는 것이 목표임.

- 가나의 고용과 빈곤 데이터는 비공식 부문의 우세를 고려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함.
- 비공식 부문에 경제적 활동인구의 91%가 종사. 주요 비공식 부문은 농업, 식품 가공, 의류, 금속 조립, 수리, 목재 가공, 수공업, 건설, 차량 정비, 무역, 레스토랑, 운송.

6.2 콩고 민주공화국 : 약한 성장과 높은 실업

- 주요한 다자, 양자 공여국들의 도움으로 경제 개혁의 이행을 통해 1995~1996년 동안 약간의 회복을 보이며 콩고의 경제가 시작됨.
- 연속적 무장 분쟁으로 약간의 회복을 보이던 경제가 중단되고,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개혁에 심각한 손상을 줌.
- 비록 성장은 매우 불안했고 M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했지만, 1999~2000년 평화의 시작과 거시경제 안정의 회복은 경제활동을 다시 북돋음.
- 우호적인 세계경제 환경과 거시 경제의 안정화 회복 때문에 2000년 이후로 콩고의 경제적 성과는 꽤 두드러짐.
 - 인플레이션율의 감소와 실제 GDP 증가로 경제 성장 판단 가능.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는 콩고 경제 성과에 적당한 영향을 줌.
 - 그러나 수출에 대한 수요, 특히 목재가 감소해왔고, 국제 오일 가격의 하락은 재정 수입을 줄임.
 - 그럼에도 오일 생산의 상당한 증가와 non-오일 GDP에서 적당한 증가로 실질 GDP는 2009년에 7.1%까지 상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빈곤률은 걱정스러운 정도로 높음.
 - 이런 염려스런 상황은 발생한 전쟁들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의 경제적 선택과 정책의 결과. 또한 이러한 빈곤과 실업은 불충분한 의료와 기초 교육 서비스와 관련.

- 보통 성장과 고용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나, 콩고의 경우 채광산업 부문(일자리 창출에 낮은 잠재성을 가진 자본집중 부문)에서 대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장의 영향이 고용에 있어서는 매우 약하게 미침.
- 콩고에서 정규 고용은 대개 민간 부문에 제한, 삼림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많은 사기업들에 제한되었음. 비록 비 오일 부문에서의 성장이 최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음.
- 그 외에도 많은 정책입안자들은 콩고 경제의 낮은 고용 성과를 콩고의 노동의 수요와 교육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간 불균형의 결과로 봄.
- 콩고의 노동시장 규제는 너무 엄격하고 고용과 해고를 제한함. 게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지출에서의 낮은 효과성은 낮은 고용 창출 성과의 또 다른 원인임. 일자리 창출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진 부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할당된 자원은 매우 제한적. 또한 농공산업과 제조업 또는 서비스를 촉진시킬만한 효과적인 정책이 없음.
-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또한 매우 낮음.
- 공공부문에서의 얼어붙은 채용. 전쟁기간 중 민간 경제 활동과 일자리 파괴. 국유 기업의 폐쇄. 중소기업 창출을 위한 지역 계획 부족, 기술적, 직업적 교육 활동의 부재, 신용 거래 접근의 어려움, 기업화, 산업화를 돕는 정책의 부재 등.
- 비정규 노동 시장이 콩고에서 대부분의 구직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안.

6.3 르완다: 빠른 성장성과 그러나 실업과 빈곤이 여전히 주요 우려

- 지난 10년 동안 르완다의 인상적인 경제 성장은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빈곤 감소로 이어지지 못함.
- 경제가 활발하지 못한 농업과 비공식 부문에 매우 의존적이었기 때문.

- 2008년의 두드러진 성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의 환경에서 성취되었고, 3개의 부문에서 탄탄한 개선이 성장을 만들.-농업, 서비스, 산업.
- 농업 부문은 나라 전체에서 농업에 알맞은 좋은 날씨 환경덕분에 2008년 15%의 성장률을 기록.
- 산업 생산의 성장률은 2001~2009년 동안 안정적인 상태유지. 특히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서비스 분야의 평균 성장률은 1980~1990년에 3.9%에서 1991~2000년에 4.2%로 상승. 금융과 보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분야는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 서비스 분야는 ICT와 다른 하위분야로의 큰 투자 때문에 GDP에 가장 큰 기여를 했음.
- 훌륭한 거시경제 관리는 르완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성장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된 경제 개혁은 독립적인 회계감사 에이전시를 가진 엄격한 공공 지출 관리 시스템, 독립적인 규제력을 가진 에이전시, 그리고 부패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음.
- 르완다는 비즈니스를 규제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개혁국가 중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과 고용에 대한 기여가 제한적. 주로 적당한 사회 기반 시설 서비스, 특히 도로, 에너지의 부족, 금융 부문의 취약성 때문.
- 르완다의 경제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화에 통합되지 못한 영향과 농업에의 높은 의존도 때문.
- 여전히 심각한 실업과 빈곤. 정부의 주요 도전과제는 빈곤친화적 성장의 새로운 근거를 활성화 시키는 것.
- 2001년 초에 르완다는 Vision 2020을 채택.
- 전반적인 목표는 경제를 middle income knowledge-based dynamic 서비스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

- 2020년에 일인당 GDP \$900 도달, 적어도 7%의 연 성장률 도달, 2000년 64%의 빈곤율을 2020년에 30%까지 낮추는 것, 평균 수명을 55세까지 높이는 것.
-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반 시설, 인적 자본, 지적 서비스 분야에 큰 투자를 요함.

□ FDI는 몇 가지 방법으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침.

- FDI의 직접적 영향은 생산 능력 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해 작용함. 또한 국가 예산의 세금 수입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위한 투자와 빈곤층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 재원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함. FDI는 정부가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지역 빈곤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함.
- 그러나 지금까지 FDI는 제한적 역할 해 음. 2000년 이후로 단지 31개의 프로젝트에만 FDI가 차지, 2001~2007년 기간 동안 GDP의 0.5%를 의미. FDI의 유입은 1,708개의 일자리만을 창출.
- FDI의 낮은 성과는 2개의 주요 요인에 의해 설명됨. 첫째, 적당한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 적절하게 훈련된 노동자 부족. 둘째, 정치적, 지리학적 상황과 관련 됨.

□ 몇몇 경제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요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 위한 도전과제에 직면.

-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의 빈곤 발생 정도와 심각성을 증가시킴.
-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전략은 특히 중소기업과 비공식 부문의 홍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 투자를 고양시키는 것. 서비스 분야가 르완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라 예상.

□ 르완다는 지역 내에서 경쟁력 있는 높은 질의 서비스에 투자를 촉진하는 강한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술과 공학, 관리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기술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기간의 정책을 추구할 필요 있음.

- 특히 혁신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6.4 튀니지: 인상적 성장과 고용성과 그러나 고용집중 성장의 감소

- 독립 이래 튀니지는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진보 이룸. 경제 개발, 일인당 수입의 향상위한 정책 개혁과 더불어 인적 자본과 가족계획에의 투자는 국가 생활수준을 상승시켰고 숙련된 노동력 제공했음.
- 이 정책들은 경제적 사회적 개발 속도 증진에 도움이 됨. 현재 튀니지는 중소득국가로 세계은행에서 분류.
- 이런 성취에도 튀니지는 아직 청년층(25세 이하, 30%)과 여성(16%)의 높은 실업률 과제에 직면.
- 1961~2009년 튀니지의 경제는 5.1%의 연간 경제 성장률과 외부충격에 대한 빠른 회복력을 보임.
- 이러한 성과는 주로 외국 무역 개방, 증가된 공공투자, 고도로 숙련된 인적 자본이 기반된 구조적 개혁의 결과.
- 튀니지는 1990년대 초 걸프 전쟁과 관련된 외부충격, 1997년 동아시아 위기 등을 잘 견뎌왔음. 게다가 지속된 가뭄이 있었지만 튀니지의 농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음.
- 1990년부터 이어진 변동성의 감소는 주로 수입과 수출의 큰 안정성과 국내 수요 증가의 결과임.
- SAP을 선행했던 1975~1986년 기간 동안 5.6%의 매년 평균 성장률을 보인 국내 수요에 의해 튀니지의 경제가 성장, 반면 외부 수요의 순 기여는 약 -1%였음. 이 기간 수입(income)과 오일세입의 뚜렷한 증가.
- 사회 복지 정책을 수반하며 튀니지의 성장 성과는 나라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
- 1956년 독립이래, 세 갈래의 사회복지정책 진행.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교육, 인구증가와 다산률을 감소시키는 가족계획 정책 하에서의 산아 제한, 노동 시장에 여성 참여 증가.

- 그 결과 상당한 빈곤 감소율 보임.(2005년 3.8%, 2000년 4.2%, 1990년 6.7%, 1985년 7.7%) 일할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의 비율은 1995년 17%에서 2000년 10%로 하락.

□ 튀니지의 경제는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겪음.

- 제조업보다 오히려 농업과 산업의 역할 감소, 서비스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성장이 점점 기후 변화에 덜 의존적임.
- 다양한 부문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두 가지 요인의 결과. 첫째, 국내 수요와 외부 수요의 구조조정. 둘째, 세계 경제로의 강한 통합.

□ 인력시장에서도 변화 겪음.

- 1990년대 중반부터 연간 70,000개의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속도가 실업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느렸음. 그러나 매년 41,300개 52,500개의 일자리는 1981~1986년과 1987~1995년 기간 동안 기록된 비율보다 높은 수치. 이러한 상황의 주요 이유는 생산적인 서비스 분야의 활발한 성장.
- 그러나 상당한 일자리 창출에도 청년층(25~29세)의 실업률은 1984년 12.6%에서 2008년 25.2%로 상승. 게다가 젊은 대학졸업자들 사이에서의 실업률 또한 점점 염려스런 상황. 성장과 고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일자리 창출의 수준이 실업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줌.

□ 고용을 강화하는 성장의 진전을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이익을 비교하는 것.

- 경제 성장이 생산성 증가를 앞서면 일자리가 생김. 튀니지에서 고용 집중 성장의 감소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 더 필요. 주된 이유는 내부지향적이며 규제가 기반이 된 제도로부터 세계경제 통합과 더 큰 경쟁이 기반이 된 제도로의 과도적인 특징에 내재해 있음. 전에 있던 인센티브 시스템보다 나중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고용에 더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동안 주로 많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를 수반했음.

- 튀니지의 민간 부문은 중소기업이 지배적.
 - 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조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기술과 생산 공정이 특징. 비용 최소화 접근을 택한 기업들은 많은 수의 미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향. 단지 대규모 기업들, 주로 에너지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봉급생활자 고용.

- 2000년에 고등교육 졸업장을 소지한 사람 중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6.6%를 차지. 이 비율은 2007년도에 20%로 상승.
 - 비록 국가는 여성 취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통계수치는 남자와 비교하여 볼 때 여자가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보여줌. 모든 졸업자들 가운데 여성 실업률은 51.6%, 남자는 38.3%.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유는 여성이 가진 대부분의 대학 졸업장은 기업들 사이에서 수요가 적은 분야임.

- 고용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이 채택되어 왔음. 그러나 높은 실업률로 노동 시장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는 현재 나누어져있는 PAE 방법에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됨.

6.5 결론과 권고되는 정책

6.5.1. 전반적인 성장과 아프리카 4개국의 고용 성과

-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4개국에서의 평균 성장률은 MDG 달성을 위한 7% 수준 이하에 있음.

- 제기되는 질문은 아프리카 나라 안에서의 성장이 고용 집중적이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성장으로 인한 고용 집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 지난 20년 동안 가나는 주요 생산품(코코아, 금, 목재)에 대한 강한 국제적 수요와 국내 개혁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옴.

- 이러한 성과는 꾸준한 빈곤 감소, 실업률 감소와 함께 사회적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 1980년대 이후로 실행해 온 경제 개혁에도 기여함. 그러나 공공부문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에 반응하지 못했고, 농업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함.
- 오늘날, 가나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성장을 성취하는 것이 주요한 도전과제로 남아있음.

□ 튀니지는 비교적 높은 성장과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 상당한 향상을 성취 해 왔음.

- 성장 전략은 특히 노동 시장의 참여와 생산적인 자산, 주로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거두어 빈곤층을 도왔음. 이 전략은 노동 집약적인 개발과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서비스 활동을 근거로 함.
- 그러나 성장의 노동 집약성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지금 튀니지는 미숙련 노동자보다 오히려 숙련된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
- 구체적인 정책은 IT, 공학기술, 관련 산업들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성장을 북돋울 것을 요구.

□ 콩고와 르완다 두 나라의 경제는 전반적인 성장이 노동력 증가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 할 만큼 충분히 높지 못함.

- 콩고의 지나친 오일에 대한 의존은 세계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음. 이 분야는 경제와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을 제한해 왔고, 자본 집약적인 오일 산업으로부터의 수입과 고용에 대한 영향은 지금까지 무시해도 될 정도였음.
- 콩고는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식 부문에서 월급이 잘 지불되는 일자리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르완다는 높은 인구 밀도와 농업에의 의존도에 의한 복잡한 고용 창출이 도전과제. 경제적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천연 자원이 많지 않고, 작고 비경쟁적인 산업 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최근 긍정적 성장 성과는 아주 약간의 일자리 창출을 만듦.

- 요컨대, 4개 나라의 사례에서 성장과 고용을 고양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잘 고안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된 개발 계획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 줌.
- 이러한 계획들은 노동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부조화를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동 시장의 개혁뿐만 아니라, 유연한 거시경제와 부문별 정책을 포함해야 함.
- 그러한 정책들은 또한 경제적 이행의 효과를 완화시키도록 새로운 노동 집약적 산업의 개발을 향상시키도록 노동자와 기업들을 원조해야 함.

6.5.2. 국가 차원에서의 성장과 고용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

□ 가나

- 농업과 농공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인적자원개발을 가속화
- 성장과 고용 전략의 조화와 실행 개선
- 고용관련 데이터의 개선
- 취약 그룹에 특별한 관심과 사회적 보호를 향상

□ 콩고

-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강화
- 적절하게 관리되고 할당된다면 경제적 다양화를 증진
- 비 광물적 FDI를 끌어들이는 것: 관광업은 직접적 간접적 일자리 창출
-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
- 노동력 공급의 질 향상

□ 르완다

-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을 지속할 것
- 인적 자본 개발을 고양할 것
- 정책과 제도를 세우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 튀니지

-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과를 개선할 것
- 높은 고용 활동에서 민간 투자를 증진할 것
- 활동적인 고용 정책(PAE)를 개혁할 것

6.5.3. 사례 연구의 주요 교훈

- ☐ 가나, 콩고, 르완다, 튀니지의 사례 연구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많은 교훈을 제공
- ☐ 종합적으로 잘 고안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된 개발 계획들은 아프리카가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업률을 줄이는데 중요함. 국가들은 그들의 주요 성장 제약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제약들을 다루는 고용에 초점이 맞춰진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 사례 연구들은 일자리 창출과 빈곤 감소에 대한 성장 문제들의 특징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보여줌.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적절한 투자를 자극하고 고부가가치, 노동 집약적인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장을 자극하는 전략 필요.
- ☐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회사들이 공식부문 경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경제적 개혁은 비공식 분야에서 취약한 고용은 줄이고, 지속적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비공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강한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 정책이 뒷받침돼야 함.
- ☐ 혁신적인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증가된 기술 이전과 채택, 상승된 생산성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
- ☐ 고용분석이 정책 공식화와 이행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려면 명확한 정의와 정확하고 자주 업데이트된 고용에 대한 통계가 필요. 이 통계 수치는 공식과 비공식 고용, 급여 지급대상 노동자와 비 대상자를 구별하는 것이어야 함. 정부는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을 줄일 수 있을 때 빈곤을 줄이고자 도울 것임.

○ 원문

UNECA, AUC, 2010, *Economic Report on Africa 2010 : Promoting high-level sustainable growth to reduce unemployment in Africa*, UNECA

- 동 아프리카경제보고서는 2000년 이후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를 통해 매년 발간되어 왔으며, 2010 아프리카 경제보고서는 Abdoulie Janneh, NECA 사무총장과 Jean Ping, AUC 회장의 책임 하에, UNECA와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짐.
- 동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 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작업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인 정책연구실장 총괄
 - 요약번역 : 한승헌(개관), 서호진(1장), 박숙현(2장),
변숙진(3장), 임문정(4장), 김진영(5장), 김주희(6장)
 - 자료취합, 정리 및 편집 : 정책연구실

업무자료 정책연구 2010-22-169

2010 아프리카 경제보고서

Promoting high-level sustainable growth to
reduce unemployment in Africa

발행	2010년 10월 일
편집 겸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전화:031-7400-309)
Website	http://www.koica.go.kr
인쇄처	동화인쇄사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